

안동 임연재종가의 『책치부(冊置簿)』와 『외암비장(畏巖秘藏)』

배 현 숙*

본고에서는 안동 임연재종가에 수장되어 있던 장서와 그 서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가에는 2종의 장서목록이 전래되고 있다. 선조 19(1586)년 임연재(臨淵齋) 배삼익(裴三益)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치부(冊置簿)』; 만력십사년(萬曆十四年)과 영조 3(1727)년 월봉(月峯) 배집(裴縑)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암비장(畏巖秘藏)』이다.

『책치부』는 전래하는 가장 오래된 국가장서목록인 『실록포쇄형지안』보다 2년 앞서 작성되었다. 『책치부』의 주제는 11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서적의 저작자를 우선으로 중국인 저자 또는 조선인 저자인가를 먼저 고려한 점이 특이하다. 『책치부』를 통해서 는 일차적으로 작성주체·주제 분류·서명·책수·복본수·잔존 책수·입수방법·판종·차람자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장서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 임연재가 수장한 서적의 입수 방법은 내사·기증·구입·편찬의 4가지 방법이었다. 특기할 것은 임진왜란 이전인데도 판종이 저록되었다는 점이다. 『책치부』는 상당기간 장서원부, 장서점검과 대출대장으로 활용되었다. 『외암비장』의 기록에 따르면 수장본은 도합 2,882책에 이른다.

『외암비장』은 경종 4(1724)년 6월의 홍수로 종택이 훼손되고 서책도 큰 피해를 당한 후, 영조 3(1727)년 배집이 서적을 정비하고 서목도 개비한 것이다. 당시 조상 전래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20..78.010>

* 啓明文化大學校 名譽教授

의 서적은 수재로 겨우 1,573책만 남았다고 한다. 분류는 25류로 구분되어 있다. 역시 저자의 출신에 따라 중국인 저자본과 조선인 저자본으로 먼저 분류한 점은 『책치부』와 동일하다. 서적마다 서명, 복본수, 책수, 판종, 입수방법 등이 저록되어 있다.

임연재증가 장서관리의 첫 번째 활동은 장서인을 검인하여 소유주임을 밝힌 것이다. 장서관리의 두 번째 활동은 서목을 작성한 후 입수되는 대로 추록한 것이다. 세 번째 활동은 『책치부』나 『외암비장』을 이용해 장서점검을 한 것이다. 장서 관리의 네 번째 활동은 서목에 대출내용을 기록해서 반납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책치부』를 통해 조선전기 사가에서도 장서목록을 작성했으며, 조선후기에 비해 그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연재의 장서는 영남의 사대부에게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단순한 한 가문의 장서로서의 기능을 넘어 역사적·사회적·문화사적·서지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서로 기억될 것이다.

핵심 단어: 배삼익, 임연재, 책치부, 배집, 외암비장, 서목, 서사

1. 서언

한 세대의 경험과 활동을 후인에게 전달하는데 문헌보다 더 좋은 매체는 없다.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정보를 장악한 자가 강자였다. 따라서 고대에는 권력을 장악한 자만이 정보를 장악하였고, 개인은 정보를 입수할 수도 없었다. 현대는 권력이 민중에게 일정부분 분산되어 있지만,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그 분야의 맹주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는 정보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문헌과 매체를 의도적으로 축적한 기관을 도서관이라고 한다.

도서관은 신전, 왕궁과 관청의 서재나 서고에서 비롯되어 민간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전과 왕궁에서도 당시의 자료를 집대성해서 재생산하였다. 민간에서는 교류 및 문화공간으로서 자신의 서재를 활용하였고, 때로는 낙향한 학자의 은둔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선비에게 있어 교육·저술·서적의 간행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서적을 입수하고, 관리해서, 전승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다.

장서량이 많아지면 관리하기 어려워 수장 서적을 파악하기 위해 장서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서목은 대개 서책을 병렬적으로 수록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들 서목을 다각도로 분석하면 당시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여러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가의 서목은 당시의 서적제작·입수방법·서적 전승·독서 경향·교류 인물 등을 다양한 각도로 재조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장서목록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상당부분 진척되었다. 그러나 현존 가장 오래된 민간 장서목록은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서 임진왜란 이전에도 민간의 장서목록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곧 안동의 임연재종가 구장의 목록이다. 임연재종가의 구장서에 대해서는 이미 구자훈이 연구한 바 있다.¹⁾ 이 논문은 장서가와 장서인을 위주로 분석하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서적만 한정해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장서목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연재종가의 구장본을 조감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안동의 임연재종가에는 2종의 조선시대 서목이 전래되고 있다. 하나는 선조 19(1586)년 처음 작성한 『책치부(冊置簿)』이고, 다른 하나는 영조 3(1727)년에 처음 작성한 『외암비장(畏巖秘藏)』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서목을 중심으로 임연재종가의 장서에 관해 서목의 작성자·서재·서적의 집서과정·주제범위·서목의 조직·차람자·장서관리·전래본 등에 대하여

1) 具賞訓,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大學院, 2011, 101쪽.

살펴보고자 한다.

2. 사가장서의 원류

문인이나 학자에게 있어 서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문인 학자는 당연히 장서가로서의 1차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문인이나 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장서가인 것은 아니다. 장서가란 특별히 책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열독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조선시대까지는 현재와 같이 서적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느 한 학자가 혼자서는 평생 수집해도 큰 장서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해야 장서라고 할 정도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 장서를 후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장서라 할 수 없고 가문(문중)의 장서였으므로, 개인문고와 문중문고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였다. 따라서 민간의 장서는 개인장서이면서, 동시에 문중 장서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간의 서재에 관한 기록은 신라 통일기 고운 최치원의 독서당(讀書堂)이다.²⁾ 그는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게 되자 해인사에 또 단속사에 독서당을 지어 그곳에서 독서를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도 목판인쇄술과 사학의 발달로 많은 문인 학자들이 배출되었

2) 崔致遠, 『題伽倻山』, 『東文選』, 顯宗實錄字本, [肅宗 39(1713)] 卷4, 七言絕句, 張1.
李荇 等撰, 『新增東國輿地勝覽』, 木版本, [光海君 3(1611)] 卷30, 慶尙道 晉州牧, 佛宇, 斷俗寺, 張15.
황인규, 「고려시대 유생의 書齋와 그 문화」, 『한국교육사학』 28권2호, 2006.10, 174, 189쪽.

으므로 장서가가 배출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기록상 최초의 서재는 곽여(郭輿, 1058-1130)의 양지재(養志齋)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내시부에 소속되었다가, 합문지후와 홍주목사를 거쳐 예부원외랑으로 사직하였다. 은퇴하자 왕은 성 동쪽 약두산(若頭山)의 한 봉우리에 집을 짓고 살게 했으며, 호를 동산처사(東山處士)라 하고, 집을 허정당(虛靜堂), 서재를 양지재(養志齋)라 임금이 친히 편액을 써서 내려주었다.³⁾ 따라서 고려 초부터 문인과 학자는 자신의 서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문인이나 학자가 서적을 수장한 전통은 조선에 계승되었을 것이다.

조선전기에도 전래 서적의 축적량이 많지 않아 대규모 장서가의 출현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선후기에도 2대 이상 청요직을 지낸 집안에는 내사본이 축적될 수 있었고, 중국본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 거대 장서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 수장내력을 밝힌 기록이 몇 가지 전래되고 있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그의 서적을 구서재(九書齋)에 수장하고 있었다고 하나, 목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서란 독서(讀書)·간서(看書)·장서(藏書)·초서(鈔書)·교서(校書)·평서(評書)·저서(著書)·차서(借書)·폭서(曝書)를 의미한다.⁴⁾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정조 3(1779)년 규장각 검서가 된 후부터 정조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받은 국왕하사본의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⁵⁾ 이는 정조가 사망(1800)한 40일 후에 작성한 내사서목이며, 모두 61종 306책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서적은 유득공이 수장하고 있던 전체 서적은 아니므로, 유득공이 수장하고 있던 서적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기록은 체계적이 아니어서 장서가와 문고에 대한 연구에는 미진한 점이 있어, 본격적인 연구는 아

3) 『高麗史』, 卷97, 列傳 卷10, 郭尙附 郭輿列傳, 張9, 影印本, 亞細亞文化社, 1983, 162上. 황인규, 위의 논문, 176쪽.

4) 李德懋, 『雅亭遺稿』, 芸閣印書體字, (漢城: 芸閣, 正조20:1796) 卷6, 與李洛瑞書九書, 張20.

5) 柳得恭, 『冷齋書種』, 寫本, [年紀未詳] 古芸堂筆記 卷6, 張30.(규장각 古 0320-26) 柳得恭, 藤塚隣 編, 『古芸堂筆記』, 寫本, [刊年未詳] 卷5, 賜書總目, 張76-77.

직 수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순조 연간에 활동한 강준흠(姜浚欽, 1768-?)은 당시의 4대 장서가로 이정귀(李廷龜, 1564-1635) 고택, 이인엽(李寅燁)의 만권루(萬卷樓), 유명천(柳命天, 1633-1705)의 청문당(淸聞堂), 유명현(柳命賢)과 유명퇴(柳命賚, 1652-1712)의 경성당(竟成堂)을 거론하였다.⁶⁾ 현종과 철종 연간 활동한 홍한주(洪翰周, 1798-1868)는 대규모 장서가로 속당(續堂)에 4만 책을 수장한 심상규(沈象奎, 1766-1838), 각각 3-4만책 정도 수장한 조병구(趙秉龜, 1801-1845)와 윤치정(尹致定, 1800-?), 8천책을 수장한 이경억(李慶億, 1620-1673)의 만권루(萬卷樓)와 두릉리(斗陵里)의 서유구(徐有渠, 1764-1845), 이외 서울의 고가에는 만 책을 수장한 사람은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⁷⁾라고 하였다. 장서가에 대한 이들 기록은 모두 정조 연관을 전후한 시기의 기록이다.

근래에 이르러 개인장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권벌(權撥, 1478-1548) 후손가,⁸⁾ 이황(1501-1570),⁹⁾ 정구(1543-1620)의 무흘정사(武屹精舍),¹⁰⁾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녹우당(綠雨堂),¹¹⁾ 파평윤씨 노종파(魯宗派),¹²⁾ 진천의 완위각(宛委閣),¹³⁾ 최흥원(崔興遠, 1705-1786) 종가,¹⁴⁾ 장흥 오천정사(梧川精舍),¹⁵⁾ 김정희(1786-

6) 崔相根, 『姜浚欽의 三溟詩話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10.

7) 洪翰周, 『智水拈筆』, 筆寫本, [年紀未詳] 卷1, 張2.

8) 金東湜, 『沖齋 遺物館 藏書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2.

9) 裴賢淑, 「退溪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10, 1994.12, 135-169쪽.

10) 鄭羽洛, 「山中圖書館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性格과 意味」, 『嶺南學』 20, 2100.12, 7-52.

11) 宋日基, 盧基春, 「海南 綠雨堂 所藏 典籍의 考察」, 『호남문화연구』 31, 2002, 1-3쪽.

盧基春, 「海南 綠雨堂 所藏 典籍의 性格과 特徵」,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第1-2冊』, 태학사, 2003

12) 林英蘭, 姜順愛,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 2005.9, 323-354쪽.

13) 박용만, 「宛委閣의 전적수집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 『書誌學報』 32, 2008.12, 57-75쪽.

박용만, 「宛委閣 소장 전적의 특징과 가치」, 『고인쇄문화』 20, 2013. 9, 367-443쪽.

1856) 후손가,¹⁶⁾ 화성시 정윤영(鄭胤永)가,¹⁷⁾ 예천 미산고택(味山古宅),¹⁸⁾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정미수(鄭眉壽) 종가¹⁹⁾의 장서는 연구된 바 있다. 이상은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장서가에 대해 유추한 것이고, 실제 수장한 서적을 수록한 서목을 토대로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해 장서에 대한 수장자 생존 당시의 장서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여건상 서목을 작성했을 여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서목에 대한 기록도 일부 전래되고 있고, 실제 전래된 서목도 있다. 고려시대에 작성된 목록으로는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비롯하여 『초조대장경목록』인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과 『재조대장경목록』인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판각목록에 해당한다. 『초조대장경목록』인 『대장경목록(大藏經目錄)』은 산실된 상태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경의 판각목록 외에 고려시대 사고의 서적에 대한 서목도 있었다. 조선 세종 3(1421)년 1월 왕이 『충주사고서적부(忠州史庫書籍簿)』를 열람하고 필요한 서적을 봉교 정주생(鄭周生)을 파견하여 가져오게 하였다는 기사²⁰⁾를 통해 고려 사고의 서목이 조선 초까지 전래된 것을

-
- 14) 南權熙, 최기척, 「慶州崔氏 百弗庵 宗家 崇慕閣 藏書의 書誌的 分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537-557쪽.
- 15) 盧基春, 「長興 梧川精舍 藏書考」, 『호남문화연구』 29, 2001, 5-69쪽.
- 16) 藤塚鄰, 藤塚明直, 『清朝文化東傳の研究 :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國書刊行會, 1975. 金院堂舊藏書目錄, 507-527쪽.
金約瑟, 「秋史金正喜藏書目錄」, 『國會圖書館報』 5-3, 1968.3, 8-11쪽.
玉泳晟, 「秋史家の 藏書目錄인 留餘觀藏書에 관한 연구」,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創設20周年 紀念論文集』, 1994, 661-191쪽.
玉泳晟, 「秋史家の 藏書에 관한 一考 ; 東濱文庫 所藏本을 중심으로」, 『계간서지학보』 27, 2003.12, 79-120쪽.
- 17) 김자운, 「장서 기록을 통해 본 鄭胤永家 장서 및 藏書印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4, 2017.06, 131-167쪽.
- 18) 玉泳晟, 「咸陽楊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的 特性」, 『書誌學研究』 19, 2002.6, 255-285쪽.
- 19) 宋日基, 禹貞訓, 「海州鄭氏 宗宅 家藏 古文獻 研究」, 『書誌學研究』 41, 2008.12, 121-162쪽.

볼 수 있다. 조선은 이 전통을 견지해 사고 서적의 서목을 작성했으니, 곧 실록의 형지안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에는 책판목록 2종과 사고(史庫)의 서목 1종이 전래되고 있다. 책판목록은 『영남책판기(嶺南冊板記)』와 『고사촬요(攷事撮要)』에 편입된 「서책시준(書冊市准)」이다. 『영남책판기』는 선조 9(1576)년 이후 동 18(1585)년 이전에 작성되었고, 『고책판소재고(古冊板所載放)』에 전래되어 있다. 『고사촬요』는 명종 9(1554)년 어숙권(魚叔權)이 처음 편찬한 후 영조 47(1771)년까지 무려 12차에 걸쳐 개정되고 증보되었다. 「서책시준」은 선조 9(1576)년 개정의 을해자본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²¹⁾ 사고의 서목은 선조 21(1588)년 9월 전주사고의 실록을 포쇄한 후 작성한 『실록포쇄형지안(實錄曝曬形止案)』이다.²²⁾ 이는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서목이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주장여부와 관계없이 편성한 서지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이 가장 연대가 이른 편이다. 『해동문헌총록』은 경와(敬窩) 김휴(金休)가 그의 스승인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권유에 따라 낙동강을 중심으로 인근의 명문대가를 방문하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인조 연간까지 저술된 문헌을 섭렵하여 엮은 서지이다. 임진왜란 후 전적이 대거 산실되자 전래 서적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껴 작성한 서지인 것이다.

정조연간 이후에는 관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서를 대상으로 한 목록과 민간의 장서목록도 점차 편성되었다. 관장의 장서목록은 정조 5(1781)년 서호수(徐浩修)가 열고관(閱古觀)과 개유와(皆有窩) 주장의 중국본과 서고(西庫)에 주장된 조선본을 정리한 『규장총목(奎章總目)』을 들 수 있다. 이후 규장각 주장의 서적을 대상으로 편찬한 『개유와서목』, 『열고관서목』,

20) 『世宗實錄』, 卷11, 3年 1月 庚午, 影印本, 冊2, 420上左.

裴賢淑, 「高麗朝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奎章閣』 6, 1982, 52쪽.

21)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民族文化, 1983, 9-19쪽.

22) 『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21(1588)]

『서서서목(西序書目)』 등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사가의 장서 목록도 속속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연구된 사가의 장서목록은 17세기 중기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가장서적부(家藏書籍簿)』,²³⁾ 17세기 말기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가장서적(家藏書籍)』과 후손의 『장서목록』,²⁴⁾ 19세기 남양홍씨가의 『만재장서기(晩齋藏書記)』와 『만권루장서목록(萬卷樓藏書目錄)』,²⁵⁾ 김유근(金逄根, 1785-1840)가의 『서적총목(書籍總目)』,²⁶⁾ 19-20세기 금성정씨가(錦城丁氏家)의 『경사자집입계록(經史子集入櫃錄)』,²⁷⁾ 등이다. 따라서 16세기의 서목은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선조 21(1588)년 『실록포쇄형지안(實錄曝曬形止案)』보다 앞서 작성된 서목이 발견되었다. 필자가 『안동 임연재 배삼익종가 ; 충절과 애민, 장서로 일가를 이룬』²⁸⁾이란 서적을 집필하는 과정에 먼저 『책치부(冊置簿) ; 만력십사년(萬曆十四年)』을 발견하였다. 얼마 있다가 종가에서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자료의 목록을 살펴보다가 2015년 2차분 목록에서 『외암사장서목록(畏巖私藏書目錄)』이 있어 서목인가 해서 찾아보니, 실제 서명은 『외암비장(畏巖秘藏)』이었다. 이로서 임연재종가에서 2종의 서목을 찾아내게 되었고, 곧 이어 연말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두 서목을 합편하고, 우진웅의 해제를 첨부한 영인본을 제작하였다.²⁹⁾

23) 孫溪鎭, 「同春堂 後孫家 家傳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38, 2007.12, 193-225쪽.

孫溪鎭, 「藏書印을 통해 본 同春堂 後孫家의 장서 형성 배경」, 『古文書研究』 34, 2009.2, 1-29쪽.

24) 孫溪鎭, 「朴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연구」, 『藏書閣』 26, 2011.10, 222-255쪽.

25) 裴賢淑, 「萬卷樓藏書考」, 午山 柳東烈先生 定年紀念圖書館論集, 1992.2. 271-292쪽.

26) 부유섭, 「壯洞 金門의 서적 유통과 지식 재생산」, 『民族文化』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131-165쪽.

27) 裴賢淑, 「谷城 丁氏家 默容室 藏書」, 『文獻情報學報』 5, 1993.8, 331-353쪽.

28) 裴賢淑, 『안동 임연재 배삼익종가 ; 충절과 애민, 장서로 일가를 이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3.

29) 裴縑, 『畏巖秘藏』, 影印本. 한국국학진흥원, 2019.

이 영인본의 해제는 『외암비장』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책치부』도 망라하여 두 서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임연재종가 장서고인 책방(冊房)

임연재종택은 임연재의 부친 증참판공 배천석(裵天錫)이 명종 13(1558)년에 도목촌으로 복거했으므로, 종택은 이즈음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홍수를 만나 해를 입어 배집(1710-1755)이 종택을 대대적으로 개축한 후 변형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종택은 안동댐 건설의 여파로 안동군 예안면 도목리에서 1973년 안동시 송천동으로 이진한 것이다. 현재의 종택은 개축 당시의 원형대로 평면, 입면, 건축부재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진되었다.

명종 13(1558)년에 처음 건립한 원래의 종택은 조선전기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에 축조된 가옥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이상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지은 ‘누운 일자’형 건축물이며, 또한 온돌이 보급되기 전의 건물이다.³⁰⁾ 초창기 종택의 평면도가 남아있는데, 『상례비요(喪禮備要)』의 건축 뒷 면지에 그려져 있다.³¹⁾ 바로 <그림 1>과 같이 56칸에 이르는 ‘누운 일자’형 「금역당구가도(琴易堂舊家圖)」이다.

30) 이중서, 「홍해배씨종가 琴易堂의 건축과 조선후기의 구조 변화」, 『건축역사연구』 25권4호, 2016.8, 31-44쪽.

31) 金長生, 『喪禮備要』, 木板本, [간년미상]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이중서, 앞의 논문, 2016.08, 31-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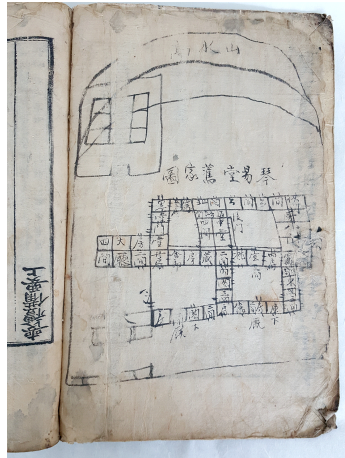


그림 1 금역당구가도. © 배현숙

「금역당구가도」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는 『상례비요』의 건축 뒷 면지에 그려져 있다. 건축의 앞 면지에는 “을축년 여름 영리인 권운룡 즉 동탄에게서 얻었음을 책주인은 기록한다(乙丑夏得於營吏權運龍東灘主人志)”라 기록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필체로 “동탄은 곧 춘포이다(東灘即春圃)”라 기록되어 있다. 정상적인 책이라면 배접지와 접혀 있는 표지부분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면지가 표지와 분리된 상태여서 노출된 것이다. 표지가 안으로 접힌 곳에는 “병오년 8월 상순 개장해서 금역당에 수장한다[赤馬仲秋上澣改權琴易堂藏]”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서적 내부에는 ‘금역당’이란 장서인이 검인되어 있다. 이 책의 정확한 간행년도는 권운룡이란 인물에 달려있다. 을축년 여름에 권운룡에게 사서 병오년 8월에 개장한 것이다. 이 책 뒷 면지에 「금역당구가도」가 그려져 있다.

한편 곤책의 앞 면지에는 “계유(1813)년 국화꽃 피는 9월 화산시에서 사서 금역당에 수장한다(癸酉菊月買得於華山市藏于琴易堂)”라 기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순조 12(1812)년 여름 영영에서 개간하다(崇禎四壬申夏

嶺營改刊)”라는 간기가 있다.

이 『상례비요』는 2책이 한 질을 이루고 있으나, 실상은 한 질이 아니다. 두 책의 인출시기가 다른데, 그것은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규격·지질·서명의 서체·장정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기록을 통해 낱질이 된 책을 내용상 완질을 이루기 위해 사서 한 질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喪禮備要, 곤책(좌), 건책(우). © 배현숙

『상례비요』는 조선후기에 세 차례 경상감영에서 복각하였다. 각각 “승정삼임인추영영개간(崇禎三壬寅秋嶺營改刊)”, “승정사임신하영영개간(崇禎四壬申夏嶺營改刊)”, “승정사무신춘영영개간(崇禎四戊申春嶺營改刊)”이란 간기가 있다. 각각 정조 6(1782)년, 순조 12(1812)년, 헌종 14(1848)년 간행된 것이다. 따라서 건책은 정조 6(1782)년 또는 그 전의 인본으로 곤책을 망실해 완질이 되지 못해, 순조 12(1812)년 인본으로 채워 한 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례비요』 건책이 영영간본이라고 보면 「금역당구가도」가 작성된 시점

은 정조 6(1782)년 이후 순조 12(1812)년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건책은 세 차례 간행된 영영판보다 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종 4(1724)년 6월에 홍수가 난 후 집을 개축했는데, 옛집의 모습을 근 60년 뒤에 그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영영판 이전에 간행한 목판본이 있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건책은 홍수와 근접한 시기에 인출되었고, 홍수 이전의 종택을 본 사람이 「금역당구가도」를 그렸다고 하겠다. 그러면 「금역당구가도」가 작성된 시기는 을축년 영조 21(1745)년과 근접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역당구가도」는 정성들여 작성한 평면도는 아니지만, 칸의 구획·공간의 용도·창호의 위치·쪽마루·사당·산수정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금역당구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청과 연결된 방에 책방(冊房)·장(藏)·사랑(舍廊)·묵실(墨室)이 있다는 점이다. 임연재는 당시로서는 대규모 장서를 했기 때문에 이들 서책을 수장할 공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 공간 내 책방에 서적을 수장하였을 것이고, 연결해서 묵실을 두었다. 표현은 묵실이라고 했지만, 실은 문방사보 즉 지·필·묵·연을 수장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필·묵·연은 양이 많아도 공간을 그리 많이 차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이는 오히려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한 물품이었을 것이다.

4. 16세기말 작성된 『책치부』

안동의 임연재종가에 전래되는 서목 『책치부』〈그림 3,4〉는 임연재가 사망하기 2년 전인 선조 19(1586)년에 처음 작성된 후 몇 차례 추록되었다. 『책치부』의 크기는 19.5 × 26.5cm이며, 22장의 필사본 서목이다. 표

지 우상에 ‘만력십사년’이란 기록이 있어, 선조 19(1586)년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목 자체에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 종 모양의 장서인인 ‘금역당’이 검인되어 있다. 가장 마지막 주제인 서법書法에는 책지의 절반이 찢겨나가 배접한 책지에 추가로 작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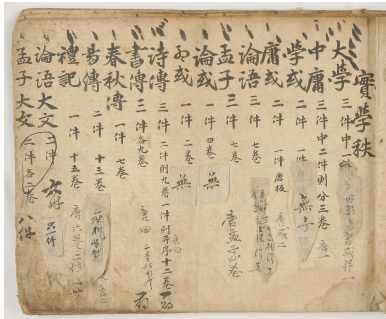


그림 3 책치부 권두. © 배현숙



그림 4 책치부 표지. © 배현숙

서목의 권두에 분류의 유목이 기록되어 있다. 권두에 경사자집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분법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인 경사자집의 체계를 채택하지 않은 독자적인 분류체계이다. 주제는 실학질(實學秩)·사기질(史記秩)·리학질(理學秩)·시질(詩秩)·문질(文秩)·의서질(醫書秩)·잡서질(雜書秩)·동방문질(東方文秩)·동시질(東詩秩)·동잡서질(東雜書秩)·서법(書法)의 11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책치부』를 통해 일차적으로 주제 분류, 서명, 책수, 복본수, 잔존 책수, 간행의 전후, 판중(사본·목본·주자·중국본), 서적의 입수방법, 차람자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장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처음 작성한 장서 목록에 후대에 장서 점검한 기록이 첨가되어 있다. 전체 책 수는 산출하기 무척 어려운 형편이다. 후대의 기록인 『외암비장』의 권말에 “옛 치부에 합계 2,882책이 수록되었으나, 현재는 1,400책, 부질본138책, 책례 수장본

35책이다”³²⁾라 기록되어 있다. 이로서 금역당을 전후한 시기에는 2,882책 즉 약3,000여책이 수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작성 주체 임연재(臨淵齋) 배삼익(裴三益)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한 서목인 『책치부』 표지에 서명은 “冊置簿”라 기록되어 있고, 우상에 “萬曆十四年”과 한쪽에 낙서인 듯한 “萬”자가 있다. 『책치부』의 처음 작성 시기는 우선 표지에 기록된 만력 14(1586)년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처음 작성된 부분의 서명을 통해 살펴봐어도 임진왜란 이전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 미루어 이 서목은 선조 19(1586)년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암비장』에서 배집은 “우리 선조가 용경만력(1567-1610) 연간에 서적을 입수하여 친히 제목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100여 년간 전해 왔다”³³⁾고 하였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하면 작성 시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임연재(臨淵齋)의 부친 충좌위부사과 배천석(1511-1573), 임연재 배삼익(裴三益, 1534-1588)과 그의 장자 금역당 배용길(裴龍吉, 1556-1609)이다. 이 시기까지 흥해배씨도 성의 글자로 裴를 썼고, 효종 연간을 지나면서 裴와 裴를 혼용하다가 조선말에는 거의 裴자를 쓰게 된다. 본고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裴로 통일해서 기술한다.

배천석(1511-1573)은 용경 연간까지 생존했었고, 만력 연간에는 생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외된다. 용경 연간부터 역동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임연재(1534-1588)이다. 그러므로 우선 『책치부』의 작성자로 임연재로 추정할 수 있다. 선조 19(1586)년에는 서목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32) 裴縑, 『畏巖秘藏』, 寫本, 英祖 3(1727), 張21.

33) 裴縑, 위의 책, 英祖 3(1727), 張23.

임연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우(汝友), 호가 임연재이다. 임연재는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명종 19(156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명종 20(1565)년 초임으로 권지성균관학유에 임명되었다. 선조 3(1570)년 9월 도산서원에서 『심경계몽(心經啓蒙)』을 강의하였다. 이후 성균관전적·예조좌랑·형조정랑이 제수되었다. 풍기군수에 재임 중인 선조 9(1576)년 7월에는 도산서원 초대 원장이 되었다. 이후 춘추관편수관·양양부사·승정원동부승지·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을 지냈다. 선조 19(1586)년부터는 좌부승지·장예원판결사, 성균관대사성을 지냈다. 선조 20(1587)년 성균관대사성을 사임하고, 이조참판이라는 직책으로 음력 3월에 진사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장예원판결사에 임명되었을 당시 조정은 중종 16(1521)년에 있었던 신사무옥(辛巳誣獄)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그 뒤처리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여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해묵은 사건을 임연재는 오로지 법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하여 안당 부자의 역모는 송사련이 조작해 낸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억울하게 노비가 되고 멸족된 안당의 자손들의 오랜 한을 풀게 되었다. 이 정의로운 판결로 임연재는 많은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³⁴⁾

진사사로 명나라에 가서 『대명회전(大明會典)』 개정판의 초고가 완성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임연재는 명의 예조에 두 차례에 걸친 간곡한 정문(呈文)을 올려서, 개정된 초고본 가운데 중계변무와 관련된 부분을 등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직 간행도 되지 않은 책의 초고를 베껴 달라는 요청은 무리한 일이었지만, 두 차례나 명나라 예부에 간곡한 정문을 올린 것이 주효하여 마침내 황제의 윤허를 얻어 내는데 성공하였다.³⁵⁾ 뛰어난 외교력을 인정한 선조는 임연재가 명에서 귀국한 후 9월에 우승지로 임명했는데, 연도에서 병을 얻어 아직 쾌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부임하지

34) 裴三益, 『臨淵齋先生文集』, 木板本, [哲宗 6(1855)], 卷6, 李廷龜, 墓誌銘, 張33.

李肯翬, 『燃藜室記述』, 鉛活字本, 朝鮮光文會, 1912, 卷13, 宣祖朝故事本末, 56.

35) 裴三益, 위의 책, [哲宗 6(1855)序], 卷5, 年譜, 張3-14.

도 못하였다.

귀국하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음력 10월에 외직인 황해도관찰사를 제수 받았다. 당시 황해도 일대에는 큰 흉년과 돌림병이 돌아 조정에서는 백성을 구휼하고 다스릴 책임자가 임연재라 하여 황해도관찰사로 임명한 것이다. 임지에 도착한 임연재는 조정에 청하여 호남지역 곡식 7,000섬과 호서지역 8,000섬을 지원받아 각지에 배급소를 마련하고 기민들에게 배급했다.

병이 심해지자 사직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거동하기도 불편할 지경이 되자 사직이 허락되었다. 그리하여 음력 6월 29일 해주감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는데, 이틀만인 음력 7월 초하루 해주 청단역에서 55세를 일기로 선조 21(1588)년 사망하였다. 임연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제문과 예관을 보내어 임진강 변에서 치제하게 하였다. 월곡(月谷) 도생서원(道生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임연재선생문집(臨淵齋先生文集)』 6권이 있다.

『책치부』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임연재의 장자 금역당이다. 금역당의 자는 명서(明瑞), 또다른 호는 장육당(藏六堂)이다. 타고난 자질이 영민하여 15세에 『춘추강목(春秋綱目)』을 한번 훑어보고 전질을 암송하였으므로 부친이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김성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이어 류성룡·조목·남치리 등을 사사하였다. 『맹자』와 『주역』을 즐겨 읽어 힘차고 거침이 없는 호방건아한 문장을 지었다고 한다.

선조 18(1585)년 30세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선조 21(1588)년 33세로 황해도 감영으로 아버지를 따라 갔다가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선조 25(1592)년 37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류복기(柳復起)·김용(金涌) 등과 함께 안동 일직에서 회맹하고 안동 열읍향병을 결성하였다. 이 향병은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금역당은 그의 부장으로 활약하면서 왜적과 크고 작은 전투를 하였다.

선조 27(1594)년 세자의 시위를 담당하는 세자익위사세마의 직을 받

고, 이듬해 선조 28(1595)년 여름에 시직, 가을에 부수로 옮겨졌다. 시국에 대한 상소로 선조 즉위 초에는 「육조소(六條疏)」를 올렸고, 선조 30(1597)년 정유재란 때는 일본과의 화친을 하지 말고 적을 소탕해야 한다며 「팔조소(八條疏)」를 올렸다.

금역당은 선조 35(1602)년 별시문과에 을과 2인으로 급제하였다. 선조 36(1603)년 3월 예문관검열이 된 후, 예문관대교·사헌부감찰·성균관전직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선조 40(1607)년 충청도도사에 제수되자 모친의 권유로 부임했다. 당시 충청도는 거위를 진상하는 일이 큰 고통이었는데, 금역당이 순찰사 심열(沈悅)을 대신해 「청감천천아소(請減薦天鵝疏)」를 작성³⁶⁾해 올리자 조정에서는 거위의 진상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광해군 원(1608)년 사직하고 낙향한 후 이듬해 5월 6일 54세로 별세하였다.

선조 38(1605)년 왜란 때 의병활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선무원종공신으로 책록되고, 인조 8(1630)년에는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아버지인 임연재와 같이 예안의 도생서원에 제향되었다. 문집은 『금역당선생문집(琴易堂先生文集)』이 있고, 편서는 『금역당첩(琴易堂帖)』이 있다.

시간적으로 보아 『책치부』를 작성했을 가능성 있는 인물은 임연재와 금역당이다. 그러나 다양한 서체로 필사되어 임연재와 금역당의 필적을 대조해도 필체의 동일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책치부』를 임연재가 작성했다면 사망하기 2년 전에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금역당 배용길이 작성했다면 30세에 작성한 것이다.

금역당은 선조 18(1585)년 30세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선조 21(1588)년 33세로 황해도 감영으로 아버지를 따라 갔다가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선조 35(1602)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므로, 선조 19(1586)년에는 아직 과거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때는

36) 裴龍吉, 『琴易堂先生文集』, 木板本, [哲宗 6(1855)] 卷2, 請減薦天鵝疏, 張36-38.

경험이 많지 않아 간본에 대한 안목을 갖추기 어렵고, 서목을 편성할 심적인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서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임연재가 내직에 있을 때, 서적과 관련이 많은 성균관·홍문관·춘추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들 관직에 있을 때는 서적의 판각·인출·장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 장인들과도 대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로 판본감식에 대한 안목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임연재가 부르는 대로 자체가 필사한 것이 『책치부』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책치부』는 임연재가 주체가 되어 작성한 것이다. 선조 21(1588)년에 임연재가 사망했으므로, 사망 2년 전 선조 19(1586)년에 임연재가 주체가 되어 처음으로 『책치부』를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금역당과 후손이 추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제까지 추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종 연간 이전으로 보인다.

2) 서적 입수방법

조선시대에는 문인들이 서적을 입수한 방법은 조상 전래, 국왕의 하사, 관각본 또는 사가 간본의 수증, 교환, 송지인책(送紙印冊), 간행, 구입, 직접 편찬하는 방법이 있었다.³⁷⁾ 국왕이 하사한 서책은 내사본(內賜本)이라 한다. 수증본은 지인이 각도 감사·부사·현감 등의 관직에 있을 때 간행해 기증한 서적, 또는 지인에게 인출을 부탁해서 기증받은 서적, 서원에서 간행한 간본을 기증받은 서책이다. 교환본은 복본을 지인과 서로 교환한 서적이고, 송지인책본은 관청에 지물(紙物)·미(米)·면포(棉布)를 대납하고 입수한 관각본이다. 간행본은 본가에서 직접 또는 사찰에 의뢰해

37) 裴賢淑, 앞의 논문, 1994.12, 135-169쪽.

서 간행한 서적이다. 중국본은 구입해야 했고, 국내서적도 때로는 구입할 수 있었다.

우선 『책치부』를 통해 임연재종가에 수장되어 있던 서적의 입수 경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연재가 서적마다 입수한 경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다. 더구나 조상 전래본, 교환본, 송지인 책본, 간행본에 대해서는 식별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다만 국왕의 하사본, 관각본 또는 사가 간본의 수증본, 구입본에는 간략한 주기가 있어 그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에 국왕 하사본, 기증본, 구입본, 편찬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왕의 하사본

후대의 서목에는 내사본을 별도로 배정하고, 유목 가운데 가장 앞세워 반드시 권두에 수록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책치부』에는 내사본을 별도로 유목을 수립하지 않았고, 서명 아래에 단지 ‘내사(內賜)’ 또는 ‘賜’란 주기만 있다. 이때는 아직 서목의 작성이 성행되지 않아, 전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임연재 문집의 「연보」에는 임연재가 관직에 있을 때 하사받은 책이 수록되어 있다. 선조 8(1575)년 5월 사간원정언 때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보이며, 외직으로 나가 있을 때 반사받은 서적은 고을의 책임자로서 행해야 할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적이다. <표 1>은 『임연재선생문집』의 「연보」·『책치부』·『외암비장』·『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에서 확인한 내사본인데, 24종이다.

〈표 1〉 內賜本

連番	書名	內賜年度	冊置簿	現傳冊數와 版本	現 收藏處
01	朱子語類	선조 8(1575) 5월	賜	140권75책, 병자자	♣ 正言, 晩松
02	[朱文公]家禮[儀節]	선조12(1579) 10월		8권4책, 목판본, 청주목	晩松
03	三綱行實圖	선조12(1579) 10월			*
04	二倫行實圖	선조12(1579) 10월			*
05	[十一家注]孫子	선조17(1584) 12월			*
06	吳子[直解]	선조17(1584) 12월			*
07	陣書	선조17(1584) 12월	內賜		♣
08	陣說	선조17(1584) 12월			*
09	[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	선조18(1585) 6월		6권3책, 계유자	副校理, 晩松
10	[古今歷代標題注釋]十九史略[通攷]	선조18(1585)윤9월		8권7책, 갑인자복각본	校理, 晩松
11	禮部韻略	선조18(1585) 9월			*
12	心經[附註]	선조18(1585) 12월	賜	4권2책, 갑인자복각본	♣ [同副承旨], 晩松
13	大學	선조19(1586) 4월		계유자	
14	大學或問	선조19(1586) 4월		계유자	*
15	中庸[章句]	선조19(1586) 4월		계유자	右副承旨 晩松
16	中庸或問	선조19(1586) 4월		계유자	右副承旨 晩松
17	異端辨正	선조19(1586) 11월		3권3책, 을해자	晩松
18	詩傳	선조20(1587) 1월	賜		♣
19	書傳	선조20(1587) 1월	賜		♣
20	易傳	선조20(1587) 1월			*
21	農事直說·衿陽雜錄	선조14(1581)		1권,1권,합1책, 목판본	● 襄陽府使
22	[簡易]辟瘟方		御賜		♣*
23	牛馬辟瘟方		御賜		♣*
24	梅月堂集		內賜		♣*

임연재는 선조 8(1575)년 사간원정언으로 있을 때 서적을 하사받기 시작하여, 선조 20(1587)년까지 서책을 하사받았다. 장서가의 수장본 가운데 내사본의 양은 많을 수 없지만, 비중은 상당히 높다. 임연재의 「연보」에 내사본으로 표기되어 있는 서적은 20종이며, 『책치부』와 『외암비장』에

3종, 『청분실서목』에 1종³⁸⁾이 더 기록되어 있다.³⁹⁾ 임연재 사후 250년이 지나 문집이 간행되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망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증거가 『농사직설(農事直說)·금양잡록(衿陽雜錄)』이다. 『청분실서목』에 내사기도 있고, ‘선사지기’도 날인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책치부』에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사기를 통해서 이들 서적의 현존여부를 탐색한 바 8종은 전래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본이다.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16종 서적은 존재가 확인되어도 내사기와 장서인을 제거시킨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내사년도를 알 수 없는 서적은 3종이다. 『벽온방(辟瘟方)』은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으로 추정된다. 중종 때 의관 김순몽(金順蒙)과 박세거(朴世舉) 등이 왕명을 받아 전염병 치료에 대한 약방문을 모아 엮은 의학 서적이다. 중종 19(1524)년 가을에 평안도 전역에 전염성 열병이 번지자 치료에 필요한 약방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중종 20(1525)년에 널리 보급하였다. 선조 11(1578)년에는 을해자로 간행한 바 있다. 『우마벽온방(牛馬辟瘟方)』은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으로 추정된다.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중종 36(1541)년 평안도를 시작으로 번진 대규모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가축 전염병 치료를 위해 권응창(權應昌) 등이 편찬한 수의학 전문서이다. 선조 11(1578)년에 중간되었다. 『매월당집(梅月堂集)』은 선조 16(1583)년 교서관에서 재주갑인자로 간행한 김시습(金時習)의 시문집이다.

이들 내사본 가운데 『손자(孫子)』, 『오자(吳子)』, 『진서(陣書)』, 『진설(陣說)』은 임연재가 병법에 재능이 있다하여 반사한 서적들이다. 임연재가 임진왜란까지 생존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서적이다. 외직에 있을 때 하사받은 서적은 대민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풍

38) 李仁榮, 『淸芬室書目』, 影印本, 寶蓮閣, 刊年未詳, 64쪽.

39) 21-24번은 연보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는 『冊置簿』·*는 『畏巖秘藏』·●는 『淸芬室書目』에서 확인한 서적이다.

기군수 때 하사받은 서적은 『가례(家禮)』,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이며, 양양부사 때 하사받은 서적은 『농사직설(農事直說)·금양잡록(衿陽雜錄)』이다. 『벽온방』과 『우마벽온방』은 반사 받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외직에 있을 때 반사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관각본 수증

임연재는 관로에 진출하였으므로 교류범위가 넓었고, 관각본을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임연재가 기증받은 서적은 <표 2>와 같이 8종이다. 8종 모두 지방관관본이며,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수증자와 수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입수내력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표 2> 임연재가 기증받은 서적

연번	서명	책수	관종	입수경위	간행년	收藏處	장서인
1	伊洛淵源錄新增	3	목관	嘉靖丙寅(1566) 慶尙監司姜尙之	명종17 (1562)	만송	臨淵齋章, 山水亭, 興海裴氏三益, 등
2	伊洛淵源續錄	2	목관	嘉靖丙寅(1566) 慶尙監司姜尙之	명종17 (1562)	만송	臨淵齋章, 山水亭, 興海裴氏三益, 등
3	太師徽國文公年譜	2	목관	嘉靖丙寅(1566) 密陽府使李丕應	명종21 (1566)	만송	臨淵齋章, 琴易堂, 興海裴氏三益, 등
4	須溪先生校本 韋蘇州集	2	목관	隆慶戊辰(1568) 凝川使李丕應	선조 1 (1568)	만송	臨淵齋章
5	新刊音點性理群書 句解	10	목관	萬曆丁丑(1577) 全羅監司具景瑞	성종19 (1488)	만송	臨淵齋章, 琴易堂
6	醫閻先生集	3	목관	萬曆己卯(1579) 晉州牧李夢應	선조12 (1579)	만송	臨淵齋章, 琴易堂, 醉裡乾坤.
7	石川先生詩集	4	목관	萬曆甲申(1584) 全羅監司具景瑞	선조17 (1584)	만송	臨淵齋章, 琴易堂
8	睡軒先生詩集	2	목관	萬曆丙戌(1586) 達城太守權灝元	선조19 (1586)	만송	臨淵齋章, 琴易堂

명종 17(1562)년 경상감사 강상지(姜尙之)가 『이락연원록신증(伊洛淵源錄新增)』과 『이락연원속록(伊洛淵源續錄)』, 밀양부사 이비응(李丕應)

은 명종 21(1566)년에는 『태사휘국문공연보(太師徽國文公年譜)』, 선조 1(1568)년 응천사로 전임된 후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須溪先生校本韋蘇州集)』을 기증하였다. 전라감사를 지낸 구경서(具景瑞)는 선조 10(1577)년에는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선조 17(1584)년에는 『석천선생시집(石川先生詩集)』을 보내왔다. 선조 12(1579)년 진주 목사 이몽응(李夢應)이 『의려선생집(醫閩先生集)』을 보내왔으며, 선조 19(1586)년 달성태수 권호원(權灝元)이 『수헌선생시집(睡軒先生詩集)』을 보내왔다.

(3) 구입본

임연재가 구입한 서적으로 주기된 서적은 <표 3>과 같이 2종이다. 선조 3(1570)년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을 서사에서 구입하였는데, 이 시기 임연재는 성균관학정 등을 지낼 때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양의 서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비응이 기증한 서적에는 습유(拾遺)가 없었던 듯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점필재집(佔畢齋集)』은 선조 9(1576)년 입수하였는데, 이 시기는 임연재가 풍기군수로 재임한 시기이다. 행승(行僧)으로부터 얻었다고 하는데, 기증받은 것인지 구입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사에서 구입한 서적도 ‘서사에서 얻었다’라고 주기되어 있으므로 구입으로 간주하였다.

〈표 3〉 임연재가 구입한 서적

書名	冊數	版種	入手經緯	刊行年	收藏處	藏書印
須溪先生校本 韋蘇州集(拾遺)	3	갑인자	隆慶庚午(1570) 得於書肆	중종 - 명종	만송	裴氏三益, 汝友
佔畢齋集	8		萬曆丙子(1576)冬 得於行僧	중종15 (1520)	淸芬室	琴易堂, 山水亭

『점필재집』은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다. 『청분실서목』에 임연재의 장

서인 ‘산수정’이 검인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임연재는 선조 3(1570)년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을 서사(書肆)에서 구입하였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서사에 대해 설치여부, 설치시기, 서사의 성격에 대해 1947년부터 1983년까지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설립된 시기에 대해서 최남선(崔南善)과 안춘근(安春根)은 중종 14(1519)년을 주장하였고,⁴⁰⁾ 박희영(朴熙永)과 김치우(金致雨)는 명종 6(1551)년을 주장하였고,⁴¹⁾ 정형우(鄭亨愚)는 순조 29(1829)-30(1830)년설을 주장하였다.⁴²⁾

민영의 정주 서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송석하(宋錫夏) 구장본인 선조 9(1576)년 간행으로 추정되는 『고사촬요』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만력 4(1576)년 7월 수표교 아래 북쪽 두 번째 마을 동구의 하한수가에서 판각하였으니, 살 사람은 찾아오시오(萬曆四年七月日水標橋下北邊二第里門入河漢水家刻板買者尋來)”⁴³⁾란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서사는 물론 가장 오래된 서책 광고로 인정되고 있다. 이동 판매상인 책괘(冊僞)에 관한 기록은 선조 원(1567)년 10월 의금부 북쪽의 박의석(朴義碩)이란 책괘가 각지의 서책을 반값에 사서 온 값으로 판매한다⁴⁴⁾는 기록이 가장 오랜 기록이다. 임연재가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을 서사에서 구입한 시기가 선조 3(1570)년이므로 책괘(冊僞)에 관한 기록과는 불과 2-3년 차이이다. 임연재가 이 서적을 정주의 서사에서 구입한 것인지, 책괘를 통해 구입한 것인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40) 최남선, 『攷事通』, 三中堂書店, 1943, 제64장 活字의 傳播, 150쪽.
安春根, 『韓國書誌學』, 通文館, 1967, 132쪽.

41) 박희영, 「書肆考」, 『國會圖書館報』 4권11호, 1967.11, 5-7쪽.
金致雨, 「書肆의 設立에 關한 研究」, 『釜山女大論文集』 10, 1981, 321-334쪽.

42) 鄭亨愚, 「書肆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書誌學』 2, 1969, 47-61쪽.
鄭亨愚, 「書肆問題 論考」, 『東方學志』 35, 1983, 161-190쪽.

43)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29, 292쪽.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1955, 179쪽.

春山(李)仁榮, 「攷事撮要의 冊板目錄について」, 『東洋學報』 30卷2號, 1943, 31-56쪽.

44) 柳希春, 『眉巖日記草』, 國學資料院, 1982, 丁卯年 10月 18日. 20쪽.

한편 구입본이란 주기는 없지만,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이 있다. 『책치부』에 당본(唐本)이라 주기된 서적으로 중국본이다. 당시 당본의 입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경에 사신으로 가는 경우 구입해올 수 있고, 직접 갈 수 없는 경우는 사행에 따라가는 역관·군관·반당에게 부탁해 입수하거나, 한손 건너 책거간을 통해 입수할 수 있었다. 『책치부』에는 25종의 당본이 주기되어 있다. 당본의 일부는 책거간을 통해 입수하였을 것이고, 일부는 임연재가 선조 20(1587)년 8월에 사은사의 정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시 구입해온 당본은 후에 추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책치부』에 당본이라 주기된 서적은 <표 4>에 보이는 것과 같이 25종이다. *이 있는 서적은 『외암비장』에도 당본으로 주기되어 있다.

〈표 4〉 『책치부』에 唐本으로 주기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판본	실제서명	책수	수장처	장서인
01	大學*	1	唐板				
02	中庸*	1	唐				
03	大學或問*	1	唐板				
04	中庸或問*	1	唐板				
05	論語*	4	唐				
06	孟子*	4	唐				
07	書傳*	4	唐				
08	易傳*	2	唐				
09	禮記*	6	唐				
10	周易會通*	8	唐				
11	通鑑*	20	唐				
12	宋鑑*	8	唐				
13	左傳	10	唐	春秋左傳類解	10	만송	臨淵齋章
14	寓言外史*	4	唐				
15	國語*	4	唐				
16	性理大全*	20	唐				
17	杜詩	10	唐本	重刊千家註杜詩全集	2	만송	臨淵齋章

연번	서명	책수	판본	실제서명	책수	수장처	장서인
18	韻府群玉*	20	唐				
19	秦漢文宗*	6	唐	新刻選註秦漢文	4	만송	山水亭
20	韓文	15	唐				
21	柳文	20	唐				
22	王荊公集*	14	唐				
23	文章軌範*	3	唐				
24	六子全書*	10	唐				
25	百將傳*	4	唐	十七史百將傳	2	만송	臨淵齋章

중국본으로 주기된 25종 서적 가운데 실물이 확인된 서적은 4종뿐이다. 모두 임연재의 장서인이 검인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이다. 홍치 10(1497)년 간행된 『춘추좌전유해(春秋左傳類解)』, 가정 연간에 간행된 『십칠사백장전(十七史百將傳)』, 만력 9(1581)년에 중간된 『중간천가주두시전집(重刊千家註杜詩全集)』은 중국 목판본으로 ‘임연재장(臨淵齋章)’이 검인되어 있다. 다만 가정 연간에 간행된 목판본 『신각선주진한문(新刻選註秦漢文)』에는 ‘산수정(山水亭)’이 검인되어 있다. 『춘추좌전유해』에는 “홍치 10(1497)년 정월에 회음공의 집에서 간행하다(弘治十年吉月刊于淮陰公舍)”란 간기가 있다. 이 판본은 중국에서도 희구본(稀覯本)에 속한다.

25종의 중국본 가운데 임연재가 직접 중국에서 사온 서적을 분간해내는 것은 어렵다. 중국본 서적의 주제는 사서삼경, 중국사, 성리학, 중국문학이 중심이다. 이중 조선에서 간행한 바 있는 서적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 목판본을 구입한 것은 조선 간본에는 오식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식한 까닭이 아니었을까? 임연재는 퇴계에게 『주자연보』를 고쳐 간행할 것을 건의한 후, 선조 원(1567)년 『주자연보』를 고쳐 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4) 편찬본

임연재가 직접 간행한 서적에 대한 언급을 보기는 어렵다. 다만 편찬한 서적에 대한 언급은 몇 가지 보이고 있다. 명종 21(1566)년 퇴계에게 『주자연보』를 고쳐 간행할 것을 건의한 후, 선조 원(1567)년 『주자연보』 수정본을 퇴계에게 보낸 바 있다.⁴⁵⁾ 이 경우 판각해 간행한 것은 아니고, 판목에 매목해서 수정한 서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선조20(1587)년 1월 성균관대사성으로 있을 때 『권학절목(勸學節目)』을 찬하였다. 당시 사풍이 쇠락하여 이를 쇄신하기 위해 선조는 조정의 의논을 거쳐 임연재를 대사성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임연재는 성균관의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한 절목을 편찬하여 술선수범하면서 엄정하게 교화하였으므로 모두 감복하였다고 한다.⁴⁶⁾

임연재는 선조 21(1588)년 윤1월 『곡강보첩(曲江譜牒)』을 완성하였다. 검교장군 배경분을 시조로 하는 흥해배씨 최초의 족보이다. 『곡강보첩』은 부친 증참판공이 가문에 보첩이 없음을 걱정하여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아 작성해온 것이었다. 부친이 임종(1573)시에 임연재에게 완성을 부탁한 것이다. 부친의 유언을 완수하기 위해 공무를 보면서도 틈틈이 작성해 임종에 가까워서야 완성할 수 있었다. 완성된 원고를 2부 필사해, 1부는 안악(安岳)에 있는 일가에 보내고 1부는 가장하게 하였다.

선조 21(1588)년 황해도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임종 시까지 기록한 업무 일기도 있다. 바로 『황해도일기(黃海道日記)』이다. 일기에 마지막 일주일은 몹시 아파서 공무를 집행할 수 없을 정도여서 ‘부좌(不坐)’라 기록되어 있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사직이 허락되었다.

임연재가 남긴 시문은 9세손인 배한주(裴翰周) 등이 편집해서 간행하였는데, 목활자로 간행한 『임연재선생문집』이다. 수록된 글 가운데 「조천록(朝天錄)」은 임연재가 진사사로 연경에 들어가서 사명을 완수하고 복명하

45) 裴三益, 앞의 책, 卷6. 年譜. 張3.

46) 裴三益, 위의 책, 卷5. 年譜. 張12.

기까지의 일정과 경과를 일기 식으로 서술한 기행문이다. 특히 예부와외 교섭, 황제 알현, 궁성의 장관연향(壯觀宴饗), 예궐사은(詣闕謝恩) 등의 행사와 연로의 이국적인 풍물이 기록되어, 당시 외국사절의 의전 절차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임연재가 저술한 서적은 <표 5>와 같이 6종이다.

<표 5> 임연재가 저술한 서적

연번	서명	편성시기	비고
01	朱子年譜	선조 원(1567)년	교정간행
02	勸學節目	선조 20(1587)년	미간
03	曲江譜牒	선조 21(1588)년	미간
04	黃海道日記	선조 21(1588)년	미간
05	臨淵齋先生文集	철종 6(1855)년	간행
06	朝天錄	[1967]년	간행

이들 6종은 『책치부』에 저록되지 않았다. 『주자연보』는 임연재가 직접 수정해서 인출해서 퇴계에게 보낸 바 있으므로 임연재도 주장하고 있었을 것인데, 저록되지 않았다. 다만 『임연재선생문집』은 당시는 필사본의 형태였을 것이며, 『외암비장』에 『임연재유고(臨淵齋遺稿)』라 저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임연재가 주장하고 있던 서적은 내사본, 구입본, 기증본, 편찬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입수 방법을 알 수 있는 서적은 극소수이고, 절대다수는 입수 방법을 알 수 없다. 국왕이 하사본에는 ‘선사지기(宣賜之記)’가 검인되어 있고, 그 외의 서적에는 임연재와 금역당의 장서인이 검인되어 있다.

3) 『책치부』의 분류방법

고려시대부터 사분법의 개념은 도입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적용된 서목은 알려지지 않은 시기이다. 사분법의 가장 이른 서목은 정조 5(1781)년에 편찬된 『규장총목(奎章總目)』이다. 따라서 경사자집의 사분법이 광범하게 적용된 것은 조선 후기에라야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임연재가 『책치부』를 작성하면서 동양 고래의 사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조선 초까지는 생활화되지 않은 까닭일 수 있다. 따라서 유목이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책치부』의 권두에 독자적인 분류체계의 유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경사자집에 대한 설명과 몇 종의 대출된 서적명과 대출자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사분법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에 대해서는 육경류, 사는 춘추·강목·통감의 서적, 자는 역사와 정주의 서적, 집은 한유·유종원·이백·두보의 문집류라 설명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사분법에 대한 이해는 있었으나,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실학질(實學秩)·사기질(史記秩)·리학질(理學秩)·시질(詩秩)·문질(文秩)·잡서질(雜書秩)·의서질(醫書秩)·동문질(東文秩)·서적질(書跡秩)·병족질(屏簇秩)로 10주제의 유목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실제 서목에는 실학질·사기질·리학질·시질·문질·의서질·잡서질·동방문질(東方文秩)·동시질(東詩秩)·동잡서질(東雜書秩)·서법(書法)의 11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즉 동문질을 동방문질과 동시질로 나눈 것과 동잡서질이 추가되고, 서적질과 병족질이 서법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정조 연간 이후에 편성된 서목에는 대개 모두에 내사본질(內賜本秩)을 배정하고 이어 주제에 따라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유목을 유(類)로 표현하지 않고 질(秩)로 표현한 것은 아직 분류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로 분류하기 앞서 먼저 저자의 국적부터 고려하였다. 즉 일차적으로 중국인 저자와 우리나라 저

자의 서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저자 부분에 조선 저자의 서적도 간혹 보이기도 한다. 즉 의서질에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 『우마벽온방(牛馬僻瘟方)』,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등이 저록되어 있으며, 잡서질에도 『칠정산(七政算)』과 같은 조선 서적이 일부 수록되어 있어 분류가 치밀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주제에 있어 유가의 경서(실학질)를 최우선 배정하였고, 역사서적(사기질), 유가서적(이학질), 시문집류(시질·문질)의 순은 유지되고 있다. 자부서적 가운데 유가서적을 제외하고는 잡서(잡서질)와 의서(의서질)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인 저작의 역사서적은 별도로 사기질이 배정되어 있으나, 조선인 저작의 역사서적은 동잡서질에 역사서적과 자부서적이 망라되어 있다. 마지막의 서법에는 중국과 조선의 법첩이 망라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분류에 있어서는 치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다.

4) 『책치부』의 편차방법

주제별로 분류된 서적은 처음에는 일정한 서열이 있는 것 같으나, 추록된 서적은 입수순으로 수록되었다. 서적마다 서명, 권수와 책수, 판종(목본·주자본·당본), 입수방법, 결본여부, 차람시기, 차람자, 진상, 내사본 등이 주기되어 있다.

서명은 대개 약서명이라 실제의 서적과 일치시키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서명에 이어 건(件)으로 표현된 복본수, 권수로 표기된 책수가 저록되어 있다. 판종 구분인 ‘주자(鑄字)’, ‘주(鑄)’, ‘당본(唐本)’, ‘당(唐)’, ‘목(木)’이 간간이 주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18세기까지는 서책의 판종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치부』에 간간이 보이는 ‘주(鑄)’로 주기된 서적은 주자본으로 볼 수 있다. ‘주(鑄)’, ‘주자(鑄字)’로 주기된 서적은 <표 6>과 같이 23종이다. <표 6>에서 *이 부기된 서적은

『외암비장』에도 주자본으로 주기된 서적이며, ♣이 부기된 서적은 『책치부』에는 鑄字本으로 저록되지 않았으나 鑄字本으로 확인된 서적이다. 26종의 서적 가운데 전래가 확인되어 활자명이 확인된 서적은 11종이다.

〈표 6〉 『책치부』에 鑄字本으로 저록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비고	활자명	연번	서명	책수	비고	활자명
01	通鑑*	17	鑄字	계유자	14	文山集*	18	鑄	
02	宋鑑*	16	鑄		15	素問	15	鑄	
03	史略*	7	鑄		16	地理書*	7	鑄	
04	綱目鐫誤*	3	鑄		17	精忠錄	3	鑄	계유자
05	穀梁傳*	6	鑄	을해자	18	文中子	2	鑄	갑진자
06	名臣言行錄*	20	鑄		19	續東文選*	15	鑄	
07	國語*	4	鑄		20	東文選*	74	鑄	
08	近思錄*	4	鑄	갑인자	21	圃隱集*	3	鑄	
09	朱子大全	82	鑄		22	游頭流錄*	1	鑄	을해자
10	東萊博議*	10	鑄		23	瓊錄*	2	鑄	
11	異端辨正*	3	鑄	을해자	24	朱子語類♣	75		병자자
12	韋蘇州集*	3	鑄	갑인자	25	中庸[章句]♣	1		계유자
13	靖節先生集*	2	鑄		26	中庸或問♣	1		계유자
					계	26종			

주자본으로 확인된 서적은 대개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이다. 다만 『유두유록(游頭流錄)』만은 명종-선조 연간에 을해자로 간행되었는데, 동국대학교에 수장되어 있다. 『통감(通鑑)』의 정식서명은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인데, 선조 연간 계유자로 간행된 판본이다. 『곡량전(穀梁傳)』은 『감본부음춘추곡량주소(監本附音春秋穀梁註疏)』인데, 명종-선조 연간 간행된 을해자본으로 확인되었다. 『근사록(近思錄)』은 2질이 전래되고 있는데, 1질은 명종 연간에 간행된 갑인자본이며, 1질은 선조 11(1578)년에 간행된 목판본이다.

『이단변정(異端辨正)』은 명종 6(1551)년 을해자 간본이고, 『수계선생교

본위소주집』은 중종-명종 연간 갑인자로 간행된 서적이다. 『정충록(精忠錄)』의 실제 서명은 『회찬송악악무목왕정충록(會纂宋岳鄂武穆王精忠錄)』이며, 선조 18(1585)년 간행된 계유자 간본이다. 『문중자(文中子)』는 『중설(中說)』이라고도 하는데, 명종 연간 갑진자로 간행되었다. 『중용』은 『중용장구(中庸章句)』이다. 『중용장구』와 『중용혹문(中庸或問)』은 『책치부』에는 주자본이라고 저록되지 않았으나, 전래되는 실물은 계유자본이다. 동시에 간행해서 하사된 『대학』과 『대학혹문(大學或問)』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계유자본으로 추정된다.

『책치부』에 ‘주(鑄)’라 저록된 서적으로 실제 확인된 서적은 모두 조선 전기의 금속활자로 확인되었다. 당시 주자본은 고위 관료이거나 문한을 담당할 관료가 아니고는 하사받거나 입수하기 어려운 서적이었다. 따라서 임연재는 금속활자본에만 ‘주(鑄)’로 주기한 것이므로, 금속활자본에 대한 감식안이 있었던 것이다.

『책치부』에는 ‘목(木)’이라 저록된 서적도 보이는데, 아래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6종이다. 이 가운데 전래가 확인된 서적은 1종인데, 목판본이다.

<표 7> 『冊置簿』에는 木本으로 저록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판본	판본	연번	서명	책수	판본	판본
01	周易傳疑	12	木		04	左傳	18	木	
02	易學啟蒙	3	木		05	小學	5	木	
03	宋鑑	15	木		06	韋蘇州集	2	木	목판본
					계	7종			

『주역전의(周易傳疑)』는 아마도 『周易傳義』의 오기로 추정된다. 『역학계몽(易學啟蒙)』은 『역학계몽요해(易學啟蒙要解)』일 수 있으나 단언할 수는 없다. 『위소주집(韋蘇州集)』만 고려대 만송문고에 전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임연재 구장의 『위소주집』은 2종이 전래되고 있다. 1종은 갑인자

본이며, 1종은 목판본이다. 「습유(拾遺)」까지 있는 갑인자본은 선조 3(1570)년 서사에서 구입했다는 장서기가 있다. 본집만 있는 2책본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은 목판본인데, 선조 1(1568)년 응천부사 이비응(李丕應)이 기증한 것이다. 응천은 밀양이며, 밀산(密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선조 9(11576)년 을해자로 간행된 『고사촬요』 「서책시준」에 『위소주집』은 창원과 남원에서 판각한 기록이 있으므로, ‘木’이란 표기가 있는 『위소주집』은 2책본으로 이비응이 창원 간행의 목판본을 구해서 기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木’으로 표기된 서적은 혹 목활자본이 아닌 가 추정했으나, 이로서 목활자본으로 확신할 수는 없게 되었다. 실제 ‘木’으로 표기되지 않은 서적도 상당수 목판본일 수 있다. 목본은 더 고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판종까지 저록된 서목을 편찬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서목이었다.

종가에서는 『책치부』를 상당기간 장서점검과 대출대장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명 아래에 견수와 책수, 판종(木本·鑄字本·唐本) 외에 입수방법, 결본여부, 차람시기, 차람자, 진상, 내사본 등이 주기되어 있다. 서명의 위 서미(書眉)에 장서 점검할 때 확인되었다는 의미의 √표가 있다. 서명 아래에는 점검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부질(不秩), 전(全), 무(無), 책 수의 차이, 진상(進上), 대출자와 책수 등이 저록되어 있다. 그러나 점검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점검 회수와 점검 시기는 알 수 없다.

이외에 차람자에 대한 정보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종택에 수장되어 있던 서책은 종인들만 열람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도 차람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임연재종가에 수장되어 있던 서적을 문중의 후손은 종가에 와서 열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가까운 후손이나 자주 드나들어 친밀한 경우는 빌려가기도 하였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차람된 바 있는 서적은 141종이었다. 서적을 빌려간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모두 72명이 넘으며, 미상 35명이다.

임연재종가의 두 서목을 통해 임연재와 그 후손들이 가문의 장서를 유

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차람 기록을 통해서 임연재 장서는 백죽당 문중의 장서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지방 문인과 학자들의 장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책치부』를 통해 당시 지역의 사대부 가문과의 교류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18세기초에 작성된 『외암비장』

『외암비장』의 크기는 16.0 × 11.6cm이며, 25장의 필사본 서목이다. 두터운 종이로 표지를 하였는데, 장책한 것은 아니고 4침안에 그냥 묶은 것이다. 표지에는 『외암비장』이라 기록되어 있다. 『외암비장』에도 금역당 장서인은 검인되어 있다<그림 5>. 권말부분 장22에는 “옛날 치부에는 도합



그림 5 외암비장. 권두. © 배현숙



그림 6 외암비장. 裴縑의 誌文.
© 배현숙

2,882책이었는데, 현재는 1,573책만 남아있다”⁴⁷⁾고 하였다. 같은 책장에 『임연재유고(臨淵齋遺稿)』 2책과 『금역당유고(琴易堂遺稿)』 2책도 추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아직 간행되지 않은 원고를 수록한 것이다. 『임연재선생문집』은 배한주(裵翰周)가 편집하여 철종 6(1855)년 간행하였으므로 간행되기 이전이다.

1) 작성 주체 월봉(月峰) 배집(裵縑)

『외암비장』의 장23에는 “경상좌도안동북면도맥리오산후학금역당주인배집(慶尙左道安東北面道脈里鰲山後學琴易堂主人裵縑)”이라 기록되어 있다. 또 장24에는 월봉의 지기가 있어서 서목의 작성자는 월봉 배집이라 할 수 있다. 월봉의 지기에는 아이들의 낙서로 보이는 글씨가 덧씌워져 있어 전체를 다 판독하기 어렵다<그림 6>. 간간이 보이는 기록을 토대로 보면 “우리 선조께서 용경 만력 연간에 약간의 서적을 ???하고, 행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친히 제첩을 기록해서 전해주었는데, 지금 100여년이 되었다. ... 자손이 된 자로서 자세히 기록하고 보장하여 무궁하게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금 산일되고 파손된 서적이 몇 서가나 되니 선조의 훈계가 막대하도다! 소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치된 서적을 보완하고 공경히 수장할 것이다. 정미년 4월16일 후손 집이 삼가 기록한다”⁴⁸⁾라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을 작성한 정미년은 영조 3(1727)년이다. 따라서 『외암비장』은 영조 3(1727)년 4월에 월봉이 처음 작성한 서목이다.

47) 裵縑, 앞의 책, 英祖 3(1727), 張21.

48) 裵縑, 위의 책, 英祖 3(1727), 張23.

‘噫惟我先祖隆慶萬曆年間若干書???或買[得於行商]親以錄題傳於今百有年餘???如昨墓之心愛玩之志? 愈?愈???乎爲子孫者寶藏詳錄俾無遺失之弊世世繩繩而今者書卷所存者散逸破碎僅餘數架??先祖莫大之訓大矣惟我小子不能無慨然者矣是以忘???惟諸所備之家將以補破碎敬以莊之云丁未(1727)孟夏哉生魄後孫縑敬識’

작성자 배집(1710-1755)은 임연재의 6대손이며, 자는 계진(季珍), 호는 월봉(月峰)이다. 월봉의 성품은 천자후중(天資厚重)하고, 독지역행(篤志力行)하였다고 한다. 그의 유고 『월봉유고(月峰遺稿)』 2권은 1981년 간행되었다. 예조좌랑과 성균관전적을 지낸 팔우헌(八友軒) 조보양(趙普陽)(1709-1788)이 행장을 지었고, 채산(蔡山) 권상규(權相圭)(1874-1961)가 묘갈명을 지었다.⁴⁹⁾

월봉은 영조 3(1727)년 『외암비장』이란 장서목록을 새로 작성했고, 전후하여 종택도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종가의 구전에 따르면 큰 수재가 있어 종택도 해를 입어 영조 초에 개축했다고 한다. 이 구전을 토대로 실록을 탐색했더니, 경종 4(1724)년 6월에 “경상도 안동과 상주 등지에 큰물이 들고 메뚜기 떼가 덮쳤다[慶尙道安東尙州等邑大水蝗出]”⁵⁰⁾란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극히 짧은 기사이지만 뜻은 매우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안동과 상주 등지에 수해가 있었으니 그 피해는 심각했지만 생략된 것이며,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렸으니 그해 흉년이 들었을 것이다. 수재로 종택이 피해를 입은 정도였으니, 장서의 피해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재를 입은 서적을 정비하기 위해 서목을 새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명에 ‘외암(畏巖)’이라 표기되어 있어, 외암이 작성한 서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대와 후대 주변을 살펴도 외암이란 호를 사용한 사람은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복수의 호를 가진 경우도 있으므로, 아마도 젊어서 잠시 사용하다가 개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지에는 목록이라 기록한 분류 유목이 수록되어 있다. 사이에 금역당이란 장서인이 검인되어 있다. 이어 서목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49) 裴縑, 1997, 卷2. 367-379쪽.

50) 『景宗實錄』, 卷15. 景宗 4(1724)年 6月 2日 癸酉.

2) 서적 입수방법

(1) 수증

『외암비장』에는 『책치부』에 기록된 서적은 물론 수록되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후 입수한 서적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서적의 입수방법에 대한 주기는 그리 많지 않다. 전래되는 과정에서 기증자명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암비장』에 수증받은 서적으로 기록된 서적은 <표 8>과 같다.

<표 8> 기증받은 서적

연번	서명	관종	책수	입수경위	간행년
1	二程粹言	木	2	陝川太守金汝器所贈	선조 18(1562)
2	歷代世年歌	木	2	隆慶戊辰(1568) 仲春 鷄林通制洪光仲印贈	선조 1(1568)
3	夙興夜寐箴	鑄	1	隆慶己巳(1569) 春 張季宜所送	선조 2(1569)
4	夙興夜寐箴	木	1	隆慶壬申(1572) 榮川太守許國善印贈	선조 5(1572)
5	??藥圖		1	隆慶壬申(1572) 黃海監司李清之印贈	선조 5(1572)
6	益齋亂藁	木	3	萬曆辛丑(1601)李?久印贈	선조34(1601)
7	敬堂集		1	辛未(1691)五月自鏡光印送	숙종17(1691)

7종이 기증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식(張栻)과 양시(楊時)가 편찬한 『이정선생전도수언(二程先生傳道粹言)』은 구암(龜巖) 이정(李楨)이 간행하였는데, 현재 국내 전존본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일본 봉좌문고(蓬左文庫) 수장본만 확인되어 있다. 이 책은 이정이 경주부윤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인 선조 18(1562) 합천에서 판각한 책이다.⁵¹⁾ 후에 합천태수로

51) 李滉, 『退溪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卷21. 書 答李剛而 辛酉. 張20.

부임한 김여기(金汝器)가 그 판목을 이용해 인출해 보낸 것이다. ‘藥圖’로 끝나는 서명 미상의 서책까지 5종의 서책은 기증받은 시기로 보아 임연재 재세시로 추정되므로, 『책치부』에는 기록이 누락된 것이다.

『익재난고(益齋亂藁)』는 선조 34(1601)년 이?구(李?久)가 기증한 서적이다. 『경당집(敬堂集)』은 장흥효(張興孝)의 시문집인데, 외손자 이휘일(李徽逸)이 편집하고, 이현일(李玄逸)이 간행한 목판본이다. 숙종 17(1691)년 경광서원에서 간행해 기증한 것이다. 이 2종의 서적은 임연재 사후 추록된 서적이다.

7종의 기증받은 서적의 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증받은 것으로 기록된 서적은 그리 많지 않지만, 실제 조선시대에 사대부가에서 서적을 수집하는 주요 경로는 수증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교환본

『책치부』나 『외암비장』에 수록된 서적에는 복본 또는 3-4복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분이 있는 서적은 수장하지 못한 서적을 구하기 위해 교환한 경우도 있다. <표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예부운(禮部韻)』은 이도헌(李都憲)의 『둔촌집(遁村集)』과 교환했으며, 『용감수감(龍龕手鑑)』은 권구례(權求禮)의 『좌전초평(左傳鈔評)』 6책과 『전국책(戰國策)』 1책의 2종과 교환했다. 이들 서적도 수장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9> 교환한 서적

서명	관종	책수	입수경위	간행년	수장처	장서인
禮部韻		2	以遁村集換李都憲			
龍龕手鑑	木	7	權求禮以左傳鈔評六戰國策一換			

(3) 기타

『외암비장』에는 주기가 자세하지 않고, 많지 않아 서적을 입수한 경로를 다 알 수 없다.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증과 교환 외에는 <표 10>과 같이 구입 1종과 자체 제작한 1종이 있다.

〈표 10〉 기타의 방법으로 구한 서적

서명	책수	판종	입수경위	간행년	수장처	장서인
兩賢淵源錄	1	목판	乙丑[1685]印得於昌原			
表箋類聚	1	寫冊	內翰先祖手筆	자체 제작		

『양현연원록(兩賢淵源錄)』은 박황(朴攄)과 윤상로(尹商老)가 조선전기 문신 정봉(鄭鵬)의 사적과 제자인 박영(朴英)의 시문을 편찬하여, 현종 1(1660)년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을축년 창원에서 간본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숙종 11(1685)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전유취(表箋類聚)』는 내한선조(內翰先祖)의 필적이라 주기되어 있다. 내한선조는 금역당으로 보인다. 내한은 한림의 별칭인데, 한림은 예문관의 정8품 대교와 정9품 검열을 지칭한다. 금역당은 선조 36(1603)년 예문관 검열과 대교를 지냈기 때문이다.

3) 『외암비장』의 분류방법

『외암비장』 면지에는 본서의 유목으로 보이는 분류 유목 2종이 수록되어 있다. 유목 2종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실제 서목의 유목과도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로서 이 서목의 실제 유목이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된 유목은 경질(經秩)·사질(史秩)·이학질(理學秩)·악서질(樂書秩)·자문질(子文秩)·집시(集詩)·운서질(韻書秩)·자서질(字書秩)·

의서질(醫書秩)·천문서(天文書)·지리서(地理書)·산서(算書)·점서(占書)·역서(曆書)·병서(兵書)·상서(相書)·농서(農書)·잡서(雜書)·도서(圖書)·동문질(東文秩)·동시질(東詩秩)·동사질(東史秩)·동이학질(東理學秩)·잡서질(雜書秩)·서적질(書跡秩)의 25류이다. 이어 면지의 유목에 없는 신책(新冊)과 유실(遺失)이 첨가되어 있다. 『책치부』의 유목에 비해 상당히 세분되었다. 그 유목의 차이는 <표 11>에서 볼 수 있다.

<표 11> 책치부와 외암비장의 유목 비교

책치부	외암비장	책치부	외암비장
實學秩	經秩	雜書秩	曆書
史記秩	史秩		兵書
理學秩	理學秩		相書
	樂書秩		農書
文秩	子文秩		雜書
	集詩		圖書
詩秩	韻書秩	東方文秩	東文秩
	字書秩	東詩秩	東詩秩
醫書秩	醫書秩	東雜書秩	東史秩
雜書秩	天文書		東理學秩
	地理書		雜書秩
	算書		書法
	占書		家藏

『책치부』에서는 서법을 제외하고는 유목의 명칭에 ‘질(秩)’이 일률적으로 부가되어 있으나, 『외암비장』에는 ‘秩’이 부가된 경우와 제외된 경우가 절반인 셈이다. 유목의 명칭이 일정하지 않지만, 저록된 서적으로 미루어 명칭이 달라도 동류로 취급하였다. 『외암비장』의 분류는 『책치부』의 유목과도 일치하지 않고, 훨씬 더 세분되어 있다. 분류에는 여전히 사분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두 서목의 동일 분류항목 내에 수록된 서적도 상당수는 근접하지만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책치부』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

서적을 확인해서 저록했다면 동일한 분류법을 사용했을 것이고, 동일 유목에 서적을 배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책치부』를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두 서목 다 대분류는 먼저 저자로 구분하여 중국인 저자의 서적과 조선인 저자의 서적으로 구분한 것은 일치된다. 또한 ‘시(詩)’와 ‘문(文)’을 분리시킨 점도 동일한 양상이다. 특징은 『책치부』의 실학이 『외암비장』에서는 ‘경(經)’으로 바뀌고, ‘문(文)’은 ‘자(子)’와 ‘문(文)’이 통합된 모양새이다. 자문질에는 철학에 속하는 자부서적과 문을 수록한 점, 자서질(字書秩)에 『금강경』을 배정한 점, 농서에 『성훈연(聖訓演)]을 배정한 점은 어색한 일이다. 실제 서적을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운서와 자서가 포함된 시가 시·운서·자서로 세분되었고, 잡서는 10여 유목으로 세분되었으며, 동잡서는 동사·동이학·잡서로 세분된 점, 권말에 유목으로 봐야 할지 의아하긴 하지만 ‘가장(家藏)’이라 하여 선조들의 시문집, 친필, 필사원고본, 가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목에 수록된 서명을 보면 중국인 저자 부분에 조선인 저자의 서적도 보이기도 한다. 악서질의 『시용악보(時用樂譜)], 운서질의 『삼운통고(三韻通考)], 역서의 『칠정산], 농서의 『농사직설], 잡서의 『이문(吏文)], 『이문집람(吏文輯覽)] 등이다. 이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치밀하게 서적을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분류주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서적의 양적 증대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외암비장』에는 점서(占書)·상서(相書)·병서·의서·농서를 위시한 제자백가 서적의 비율도 적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사대부가문의 장서에서 제자백가서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자서질에 저록된 『금강경』을 제외하고는 불경이 전혀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금강경』이 자서질에 저록된 것으로 미루어 불경이란 내용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음의(音義)를 통해 사전으로 사용할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경은 수집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임연재종가의 장서는 특이한 편이다.

월봉의 행장이나 묘갈명에 기록된바 집에 전래된 서적이 수천 책이 있고, 월봉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월봉이 자제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서 서적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 수 있다. 월봉은 기록하기를 “경서는 기초이고, 사기는 재목이며, 염락서(濂洛書)는 단청과 채색을 다 갖춘 완성된 궁실이다. 제자백가서는 담과 울타리이다. 경서를 읽지 않으면 기초가 없고, 사기를 읽지 않으면 재목이 없다. 염락서를 읽지 않으면 궁실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제자백가서를 읽지 않으면 담과 울타리가 없는 것이다. 독서하는 자는 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학자가 진실로 먼저 경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기초를 만들 수 있고, 다음에 사기를 열심히 공부하면 재목을 만들 수 있고, 또 염락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궁실을 만들 수 있으며 문장도 잘 지을 것이다. 나아가 제자백가서적을 참고해서 읽으면 담장과 울타리가 견고하게 될 것인 즉 학문은 거의 이루어질 것이다. 자네들은 이를 힘써 노력하라”⁵²⁾고 하였다.

4) 『외암비장』의 편차방법

『외암비장』에도 서적마다 서명, 건수, 책수, 판종, 입수방법 등이 저록되어 있다. 서명은 대개 약서명이라 역시 실제의 서적과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명에 이어 건(件)으로 표현된 복본수와 권수로 표현된 책수가 저록되어 있다. 2건으로 저록된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3건 이상도 적지 않다. 간간이 판종인 ‘주(鑄)’, ‘당(唐)’, ‘목(木)’, ‘사(寫)’ 등이 주기되어 있다. 이런 구분은 그동안 『책치부』를 보아온 까닭일 수 있겠다.

『외암비장』에 ‘주(鑄)’로 주어진 서적은 <표 12>와 같이 43종이다. 43

52) 襄縑, 앞의 책, 1997, 卷2. 雜著. 述讀書法示兒輩. 245-246쪽.

중 가운데 34종은 『책치부』에는 ‘주(鑄)’라 기록되지 않았으나, 『외암비장』에는 주자본으로 기록되었다. *이 부기된 9종은 『외암비장』에 새로 기록된 주자본이다. 이들 서적은 주장처를 확인할 수 없어 활자명을 알 수 없다.

〈표 12〉 『외암비장』에 주자본으로 기록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비고	활자명	연번	서명	책수	비고	활자명
01	前漢書	32	鑄		23	敬軒集	13	鑄	
02	崇古文	7	鑄		24	楚辭	4	鑄	
03	論語	7	鑄		25	醫學正傳	8	鑄	
04	孟子	7	鑄		26	婦人大全	8	鑄	
05	詩傳	12	鑄		27	纂圖	2	鑄	
06	歷代通鑑	16	鑄		28	算學啓蒙	1	鑄	
07	左傳	10	鑄		29	參同契	2	鑄	
08	杜氏通典	75	鑄		30	聖訓演	1	鑄	
09	皇明通紀	14	鑄		31	孫子	2	鑄	
10	使朝鮮錄	2	鑄		32	儒先錄	4	鑄	
11	今獻策言	8	鑄		33	梅月堂	12	鑄	
12	小學	5	鑄		34	登科錄	2	鑄	
13	心經	2	鑄		35	大明一統志*	38	鑄	
14	大學衍義	12	鑄		36	陽節潘氏*	1	鑄	
15	夙興夜寐箴	1	鑄		37	三蘇文*	16	鑄	
16	儀禮經傳通解續	25	鑄		38	撼龍經*	2	鑄	
17	唐詩鼓吹	4	鑄		39	五行精紀*	5	鑄	
18	擬古樂府	3	鑄		40	司馬法*	1	鑄	
19	唐宋句法	1	鑄		41	原從功臣錄券*	2	鑄	
20	續西山文章正宗	10	鑄		42	五禮儀*	8	鑄	
21	韓文	45	鑄		43	曲江家世千佛經*	2	鑄	
22	文山集	18	鑄		계	43종			

그런데 주자본에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 2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후에 추록된 임연재의 녹권으로 보이며, 하나는 금역당의 녹권으로 추정된다. 임연재의 녹권 『광국원종공신녹권(光國原從功臣錄券)』은

공신 책립이 끝난 후 추가로 발급받은 것이다. 『광국원종공신녹권』은 선조 24(1591)년 계유자로 간행된 녹권이지만, 임연재의 녹권은 녹권 반사 후 뒤늦게 발급한 녹권이어서 활자로 인출했을 가능성보다 사본일 가능성이 있으나 실물을 확인해야 할 일이다. 금역당은 공신도감에서 간행한 목활자본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외암비장』에 저록된 주자본은 주자본과 목활자본을 총칭한 것일 수도 있다.

『외암비장』에는 ‘목(木)’이라 표기된 서적도 보이는데, 아래 <표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5종이다. ‘목(木)’은 목판본으로 볼 수 있다. 『외암비장』에 목판본이라 주기된 서적은 105종이다. 『책치부』에는 절대 다수가 누락된 것이다. *이 부기된 10종의 서적은 『외암비장』에만 저록된 서적이다. 당시 지방에서 입수할 수 있는 인본은 다수가 목판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3> 『외암비장』에 木本으로 저록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01	選詩	9	木		54	文選對策	4	木	
02	大學	1	木		55	陸宣公集	6	木	
03	中庸	3	木		56	丹溪纂要	2	木	
04	論語	7	木		57	纂圖	2	木	
05	孟子	7	木		58	救急方	8	木	
06	詩傳	12	木		59	筆談	3	木	
07	書傳	9	木		60	困知記	2	木	
08	論語大文	1	木		61	楊輝算法	1	木	
09	孟子大文	2	木		62	龍龕手鑑	8	木	
10	詩大文	2	木		63	牧隱集	24	木	
11	書大文	2	木		64	稼亭集	5	木	
12	周易傳疑	12	木		65	秋江集	4	木	
13	發明綱目	151	木		66	佔畢齋集	9	木	
14	宋鑑	15	木		67	晦齋集	4	木	
15	唐鑑	5	木		68	竹溪誌	4	木	
16	歷代世譜	1	木		69	續蒙求	4	木	
17	忠武錄	1	木		70	咸從世稿	4	木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18	近代名臣言行錄	2	木		71	睡軒集	2	木	
19	皇明名臣言行錄	3	木		72	成先生集	3	木	
20	歷代世年歌	2	木		73	成大谷集	2	木	
21	小學	5	木		74	退溪先生集	30	木	
22	近思錄	4	木		75	鶴峯集	5	木	
23	性理大全	30	木		76	遊松都錄		木	
24	性理群書	10	木		77	止止堂集		木	
25	家禮	2	木		78	治隱行錄	1	木	
26	家禮儀節	4	木		79	花潭集	1	木	
27	朱子語類	75	木		80	石川集	4	木	
28	延平問答	2	木		81	揖翠軒	1	木	
29	二程粹言	2	木		82	松齋集		木	
30	晦庵文詩抄	3	木		83	三綱行實		木	續
31	晦庵詩	4	木		84	二倫行實		木	
32	讀書錄	1	木		85	孝行錄	1	木	
33	夙興夜寐箴	1	木		86	奉先雜儀	1	木	
34	自警編	5	木		87	關東日錄	1	木	
35	學部通辨	4	木		88	天命圖說	1	木	
36	律呂註解	3	木		89	青坡集	1	木	
37	古鏡重磨方	1	木		90	救荒撮要	1	木	
38	東坡	14	木		91	三國遺事	2	木	
39	山谷集	15	木		92	東國名宦錄		木	
40	聯錦集	2	木		93	養蠶經	1	木	
41	遺山樂府	1	木		94	王右軍法帖	1	木	
42	韋蘇州集	2	木		95	金剛經	2	木	
43	韻會	10	木		96	孝經*	1	木	
44	詩人玉屑	5	木		97	馬史抄*	3	木	
45	杜律虞注	11	木		98	經國大典*	4	木	
46	杜律趙注	11	木		99	唐書禮樂志*	1	木	
47	白氏文集	12	木		100	柳先生集*	15	木	
48	靖節先生集	2	木		101	三場文選賦*	2	木	
49	古文眞寶	4	木		102	海篇心鏡*	10	木	
50	韓文	15	木		103	東醫寶鑑*	25	木	
51	文章軌範	2	木		104	東征借著稿*	1	木	
52	醫閭集	3	木		105	益齋亂藁*	3	木	
53	左傳	18	木		계	105종			

『외암비장』에는 ‘사(寫)’라 표기된 서적도 보이는데, <표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종이다. *가 부기된 5종의 서적은 『책치부』에는 사본이란 주기가 누락되어 있지만, 『외암비장』에는 사본으로 저록된 서적이다. 『외암비장』에 사본으로 저록된 서적은 모두 19종이다.

<표 14> 『외암비장』에 사본으로 저록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01	大學衍義*	12	寫		11	西崑祖		寫	
02	焦氏易林*	2	寫		12	選擇要略	3	寫	
03	古史通略*	1	寫		13	太乙假令		寫	
04	教閱儀注*	1	寫		14	兵家秘訣		寫	
05	世繫錄*		寫		15	清江笑話		寫	
06	易釋		寫		16	傳聞錄		寫	
07	三經要覽		寫		17	耽羅日錄		寫	
08	蘇文精選		寫		18	表箋類聚	1	寫	
09	文山策		寫		19	鄭判書算法	1	寫	
10	孟浩然集		寫		계	19종			

『외암비장』에 중국본으로 주기된 서적도 있다. 이 중국본에도 조상 전래의 서적도 있고, 후에 입수한 서적도 있다. 임연재 이후 명에 사신으로 간 후손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했으므로, 『책치부』에는 저록되지 않았으나 『외암비장』에만 저록된 당본은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치부』에는 당본이란 주기가 누락되어 있는 *가 부기된 9종의 서적을 합해 『외암비장』에는 <표 15>와 같이 17종이 저록되어 있다. 당본은 대개 목판본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외암비장』에 당본으로 저록된 서적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연번	서명	책수	판본	기타
01	周禮全經*	13	唐		10	左傳類解	10	唐	
02	事文類聚*	52	唐		11	古今名喻	8	唐	
03	文獻通考*	83	唐		12	昌黎集	16	唐	
04	三國志*	10	唐		13	河東先生集	20	唐	
05	戰國策*	8	唐		14	李詩全集	10	唐	
06	李白集*		唐		15	出行寶鏡圖		唐	
07	詩學大成*	12	唐		16	人相編	10	唐	
08	古文眞寶*	5	唐		17	感應篇		唐	
09	好生編*		唐		계	17종			

『외암비장』에 처음 저록된 서적은 주자본 9종, 목판본 10종, 사본 14종, 당본 8종이다. 입수경로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당본은 대개 구입본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지방 유학자의 경우 주자본의 입수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인데, 목판본과 같은 수준으로 입수되어 있다. 가장 손쉽게 서적을 구하는 방법은 필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역시 사본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종가에서는 『외암비장』도 장서점검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미에 점검할 때 확인되었다는 의미의 부호가 있으며, 서명 아래에는 점검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全)’, ‘지기권(只幾卷)’, ‘내기권무(內幾卷無)’, ‘기권존(幾卷存)’, ‘폐(弊)’ 등의 기록이 있다. ‘전’은 완질이라는 뜻이고, ‘지기권’은 여러 책 가운데 겨우 몇 책만 있다는 뜻이고, ‘내기권무’는 여러 책 가운데 몇 책은 없어졌다는 뜻이고, ‘기권존’은 몇 권은 남아있다는 뜻이며, ‘폐’는 너무 훼손된 책이란 뜻이다. 그러나 점검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점검 회수와 점검 시기는 알 수 없다.

저록에 있어 『책치부』와 다른 점은 간혹 편자나 저자가 저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주자편정(朱子編定)’, ‘명웅종립(明熊宗立)’, ‘원이천저(元李泉著)’, ‘구경산준편(丘瓊山濬編)’, ‘진서산집술(眞西山集述)’, ‘성삼문저(成

三問著), ‘석봉필(石峯筆)’과 같은 경우이다. 또 내사기를 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점도 특징이다. 『책치부』에는 단지 ‘사(賜), ‘사책(賜冊)’이라 저록되어 있으나, 『외암비장』에는 ‘賜’, 또는 내사연도, 내사연도와 당시 관직명, 내사기를 전재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황명통기(皇明統紀)』의 경우 ‘계운록(啓運錄), 『소문(蘇文)』의 경우 ‘소문정선(蘇文精選)’과 같이 이명도 첨가되어 있으며, ‘대책(大冊)’과 ‘소책(小冊)’이라 기록해 서적의 크기도 알 수 있게 기록되어 있다. 현토본에는 ‘토(吐), 언해본에는 ‘해(解)’로 주기되어 있다. 차람자는 정구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당시까지 정리되지 않아 여전히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책치부』에는 저록되지 않았으나, 『외암비장』에는 ‘제(題)’라 하여 제첩을 필사한 사람을 밝힌 서적도 있다. <표 16>과 같이 모두 9종이다.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의 제첩을 쓴 정지현(鄭芝軒)은 정사성(鄭士誠, 1545-1607)으로 추정된다. 동도집경전참봉(東都集慶殿參奉)으로 왜란이 일어나자 어용(御容)을 받들고 서울로 향하였고, 내자시봉사(內資寺奉事),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 양구현감(楊口縣監)을 지냈다. 문집은 순조 21(1821)년에 간행한 『지현선생문집(芝軒先生文集)』이 전래되고 있다.

<표 16> 제첩의 필사자명이 저록되어 있는 서적

연번	서명	판본	제첩 필사자	비고
01	宋朝名臣言行錄	鑄	鄭芝軒題	
02	估畢齋集	木	臨澗先祖題	
03	晦齋集	木	臨澗先祖題	
04	秋江集	木	臨澗先祖題	
05	退溪集	木	趙月川題	
06	敬齋箴帖		先生親筆	
07	夙興夜寐箴帖		先生親筆	
08	朱書節要		先生題目	
09	師門手帖		先生手束	家寶

『점필재집』, 『회재집(晦齋集)』, 『추강집(秋江集)』의 제첨에는 임연재가 필사했다는 제기가 있다. 『퇴계집(退溪集)』의 제첨은 조목(趙穆)이 썼다는 제기가 있다. 조목은 평생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퇴계를 모신 팔고제(八高弟)의 한 사람이다. 『경재잡첩(敬齋箴帖)』과 『숙흥야매잠첩(夙興夜寐箴帖)』에는 ‘선생친필’이라 주기되어 있고, 『주서절요(朱書節要)』에는 선생이 제목 즉 서명을 필사했다는 주기가 있다. 여기서의 선생은 퇴계를 의미한다. 『사문수첩(師門手帖)』에는 임연재와 퇴계의 서간이 수록된 것이므로 ‘가보(家寶)’라 저록되어 있다.

권말의 신책(新冊)에 저록된 서적은 10종인데, <표 17>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대개 사본이며 일부 목판본도 있다.

〈표 17〉 신책(新冊)에 수록된 서적

연번	서명	판종	책수	입수경위
1	左傳鈔評	木	6	以龍龕手鑑煥于權求禮
2	戰國策抄	木	1	以龍龕手鑑煥于權求禮
3	兩賢淵源錄	木	1	得于檜山府
4	唐詩	寫本		金就英借寫
5	經史要集	寫本	1	
6	後集	寫本	2	秀才叔主所寫
7	庸學解	寫本	10	秀才叔主所寫
8	論語解	寫本		秀才叔主所寫
9	楊輝算法		1	買得於烏川琴秀才
10	東賦古策	寫本		借寫琴司鑿

또한 권말에 유실(遺失)된 서적의 목록도 있다. 유실된 서적은 오로지 약서명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언토상서(諺吐尙書)』를 위시하여 63종이다. 그러나 주기에 63종의 서적은 모두 간본이며, 유실된 지 이미 오래되어 수록되지 못하였으니, 후일 간본을 구해 구비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외암비장』의 판본 감식은 『책치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책치부』에는 저록되지 않은 편자와 저자를 저록한 점, 내사기를 보다 자세하게 수록한 점, 서적의 크기, 본문의 필사자와 제첩의 필사자도 저록해서 당해 서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점에서는 보다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두 서목에 저록된 서적

『책치부』의 분류순을 따라 『책치부』에 수록된 서적과 『외암비장』에 수록된 서적을 비교하면 그 증감을 알 수 있다. 두 서목 모두 약서명으로 저록되어 있고, 서로 다르게 축약된 경우는 동일 서적도 다른 서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약서명을 분간하지 못했거나 망실된 경우 저록에 차질이 있는 경우 판단하기 어려운 서적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경향만은 볼 수 있다.

『책치부』에 분류되지 않고 권두에 수록된 26종의 서적은 『외암비장』에는 주제에 따라 분산되어 18종만 저록되어 있다. 『책치부』의 실학질에는 24종이 저록되어 있으나, 『외암비장』에 저록되지 않은 서적이 3종 있어 21종만 저록되어 있다. 『책치부』 사기질에는 모두 36종이 수록되어 있는데, 33종의 서적이 전승되고 3종이 실전되었다. 이학질에서는 모두 48종이었는데, 6종이 전래되지 못해 42종이 전승되었다.

시질에는 모두 49종이었는데, 5종이 영조 초기까지 전래되지 못해 44종이 전승되었다. 문질에서는 모두 22종이었는데, 2종이 전래되지 못해 20종이 전승되었다. 문집에는 대개 시와 문이 합철되어 있다. 각각 수록된 서적도 있지만 합철된 경우도 상당히 많다. 모호하지만 이들 서목에는 구분되어 있다. 더구나 시질에는 운서와 자서도 저록되어 있으나, 문질에

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문집만 저록되어 있어 시질에 비해 중수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의서질의 서적 31종은 모두 다 전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외의 상황이다. 잡서질에는 판독하지 못한 서적이 있으나 판독된 서적 33종은 모두 다 전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문질에는 모두 23종이 저록되어 있는데, 1종이 전래되지 못해 22종이 전승되었다. 동시질에는 모두 23종이었는데, 2종이 전래되지 못해 21종이 전승되었다. 『외암비장』에 서명이 약간 변형되어 있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도산잡영(陶山雜詠)』이 『퇴계잡영(退溪雜詠)』으로 바뀐 것은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동잡서질에서는 모두 49종이었는데, 4종이 전래되지 못해 45종이 전승되었다. 그러나 2종은 정확한 서명을 알지 못해 단정할 수 없다. 서법은 모두 24종이었는데, 1종이 전래되지 못해 23종이 전승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책치부』에만 저록된 서적은 <표 18>에 보이는 33종이다. 이들 서적은 전래되는 과정에 훼손되거나 차람시킨 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책치부』에만 저록된 서적

養源涵	退溪三??	選詩	東文
朱子詩	舊唐書	淵明集	聖學十圖
柳文	宋史	孟浩集	歷代要錄
唐國語	唐書抄	教學淵海	治隱行錄
大赤壁賦	晦庵詩	鶴林清露	族譜
小赤壁賦	聖學十圖	西山文章正宗續	陳書
晦菴詩	?事本義	柳文	
孟子或問	劉向書	筆苑雜談	
春秋傳	朱書質?	松都錄	계 33종

한편 『책치부』에는 저록되지 않았지만 『외암비장』에 저록된 서적은 <표 19>에 보이는 바와 같이 168종이나 된다. 서적을 직접 보지 않고 주제를

구분하기는 매우 난감한 일이지만, 경향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명만으로 대체적으로 구분해보면 경부 15종, 사부 21종, 자부 40종, 집부 48종 내외이며, 나머지 44종은 미상으로 두었다. 가장 많이 증가된 주제는 집부서적이며, 다음이 자부, 사부와 경부 순으로 증가된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19〉 『외암비장』에만 저록된 서적

易釋	寫	東醫寶鑑	木	景賢錄	木	經史要集
三經要覽	寫	天圖		濯纓集	木	經史要集後集
孝經	木	河圖數		麗語編類		庸學解
左傳類解	唐	三辰通載		松庵集		論語解
馬史抄	木	六甲正數		冲齋逸稿		鄭判書算法 寫
大明一統志	鑄	撼龍經	鑄	賁趾集		東賦古策
古今名喻	唐	出行寶鏡圖	唐	原從功臣錄券	鑄	西陽雜俎
經國大典	木	選擇要略	寫	五禮儀	鑄	講解律
陽節潘氏	鑄	貫三才先集		入學圖說	木	三國史記
唐書禮樂志	木	紫薇斗數		正氣錄		表詩
朱子質疑		太乙假令	寫	韓巖酒禮		百里指南
????		五行精紀	鑄	詞訟類聚		愼村集
莊子虞齋		遁甲數		老乞大	木	三峯集
昌黎集	唐	尉繚子直解		青松沈氏族譜	木	集古法帖
柳先生集	木	司馬法	鑄	傳聞錄	寫	正俗篇
河東先生集	唐	兵家秘訣	寫	耽羅日錄	寫	小學??
三蘇文	鑄	歷代要略		曲江家世千佛經鑄		抽句
三場文選賦	木	東征借著稿	木	永嘉金氏族譜		元播方
蘇文精選	寫	人相編	唐	表箋類聚	寫	雪谷集
文山策	寫	太平廣記		破閑集		名?詩話
杜詩全集		太平通載		兵衛森		李相國集
李詩全集	唐	感應篇	唐	師門手帖		山居四要
孟浩然集	寫	延壽書		兩代遺墨		御醫方
西崑祖	寫	耕織圖		樵源詠帖		左傳春秋
海篇心鏡	木	有?詩		湖西申牒錄		眞逸集
類合		益齋亂藁	木	唱和集		牧民忠告
脉成經		霽峯集		琴易堂帖		產要集
辟瘟疫方		補閑集		曲江家乘		泰齋集
星學正傳		動安居士集	木	藏六德稿		拙藁
徐氏針法		遊瑞石錄	木	杜詩		濯溪集
救荒書		清江笑話	寫	辭賦		
醫學指南		朝鮮?		戰國策抄		계 168종

자부서적이 많이 증가한 것은 다소 의외로 생각된다. 월봉이 자체들에게 권유한 것처럼 제자백가서적도 경시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자부서적은 담장과 울타리가 견고하게 되어, 학문을 완성할 것이라 본 견해가 실린 것이다. 『책치부』에는 의서 31종, 서법 24종 기록되었었다. 『외암비장』에는 도병(圖屏)은 많지 않지만 서적(書跡)이 36종, 의서 35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병서 14종이며, 이외 도가서, 천문서, 지리서, 산서, 점서, 역서, 상서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결코 자부서적을 경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므로 유가의 범주를 뛰어넘은 것은 아니었다. 월봉의 「탄불법지해(嘆佛法之害)」란 시에 “아! 아! 서방의 종교는 능히 오류를 폐할 수 있는데, 정주학은 이미 쇠퇴한 지 오래되어 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존중하라 말할 것인가?”⁵³⁾라 하였고, 「술지(述志)」란 시에서는 “염락(濂洛)을 스승으로 존중하고, 한당(漢唐)의 옛 사람을 책을 통하여 벗으로 삼을 때, 내 뜻을 세울 수 있으니, 나의 둔재를 고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⁵⁴⁾라 하였다. 그러므로 불교서적을 제외한 자부서적은 견고한 담장과 울타리가 되어, 학문을 완성할 것이므로 수집한 것이다.

53) 裴縑, 앞의 책, 1997, 卷1. 述志. 53쪽.

噫噫西方教 能令廢五倫 程朱沒已久 吾道人誰尊.

54) 裴縑, 위의 책, 卷1. 述志. 56쪽.

尊師濂洛際 尙友漢唐間 可以立吾志 何難訂我頑.

7. 장서의 관리

임연재종가에서는 이들 서적을 온전하게 전승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집한 서적을 온전하게 전승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심한 관리는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심한 관리의 필수요소는 서적에 대한 애정이다. 서적에 관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세심하게 수집한 장서라 할지라도 이를 계승한 후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백년을 지탱하기 매우 어렵다.

임연재종가에서 행한 장서 관리의 첫 번째 활동은 장서인을 검인하여 소유주임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 장서인의 형태는 다양한데 방형·종형·향로형·천원지방형·병형(瓶形) 등이다. 이러한 형태의 장서인이 “임진란 전까지 이들이 장서인의 형태로 등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⁵⁵⁾는 견해도 있으나, 임진왜란 전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확인된 바 임연재의 ‘산수정’은 종형이다. 산수정은 도목촌으로 이거한 후에 임연재가 지은 정자이다. ‘여우(汝友)’는 향로형, ‘취묵(醉墨)’은 병형인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연재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서인은 다음 <표 20>과 같다.

55) 박철상, 「임진왜란과 장서인의 보급」, 『문헌과 해석』 18, 2002. 봄, 42쪽.

〈표 20〉 임연재의 장서인(실제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p>그림 7 裴氏三益.</p>	<p>그림 8 汝友.</p>	<p>그림 9 汝友.</p>
		
<p>그림 10 鰲山後學.</p>	<p>그림 11 桃村主人.</p>	<p>그림 12 曲江裴氏三益.</p>
		
<p>그림 13 臨淵齋章.</p>	<p>그림 14 山水亭.</p>	
<p><그림 6> 『須溪先生校本韋蘇州集』, <그림 7> 『須溪先生校本韋蘇州集』, <그림 8> 『周易參同契』, <그림 9> 『伊洛淵源續錄』, <그림 10> 『伊洛淵源續錄』, <그림 11> 『新編通鑑節要』, <그림 12> 『韓文』, <그림 13> 『異端辯正』. © 구자훈</p>		

임연재의 장서인은 ‘배씨삼익(裴氏三益)’·‘여우’·‘오산후학(鰲山後學)’·‘도촌주인(桃村主人)’·‘곡강배씨삼익(曲江裴氏三益)⁵⁶⁾·‘임연재장(臨淵齋章)’·‘산수정’ 등이다. 장서인에 보이는 ‘도촌’은 거주지인 도목촌을 의미

⁵⁶⁾ 이 장서인은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曲海裴氏三益]이라 판독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적인 興海의 지명이 曲江인 때도 있었다. 따라서 장서인은 曲江裴氏三益으로 읽어야 한다.

하고, ‘곡강’과 ‘오산’은 관향인 흥해의 옛 명칭이다.⁵⁷⁾ ‘산수정’은 『석천선생시집(石川先生詩集)』의 장서기에 “만력 갑신(1584)년 여름 호남감사 구경서가 기증한 서적이며, 임연재 주인이 한양의 집에서 쓰고 산수정에 수장한다[萬曆甲申夏湖南監司具公景瑞所贈臨淵主人書于漢陽寓舍山水亭藏]”란 장서기가 있고, 검인 사례에서 임연재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물에는 주로 ‘산수정’이 검인된 것을 보아 한양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⁵⁸⁾도 있으나 실은 도목촌 집 뒤에 지은 정자 이름이다. 하긴 이 장서기만 보면 산수정을 한양의 집으로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전술한 「금역당구가도」를 보면 건물 뒤로 담이 있고, 담 뒤에 산수정이 있다. 따라서 산수정은 도목에 있던 정자이다.

방형의 ‘배씨삼익’은 초기에 사용한 전서체 장서인이다.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부)습유』와 『유향설원(劉向說苑)』 등에 검인되어 있다. 방형의 ‘여우’는 전서로 각해졌고, 1570년 서사에서 구입한 『수계선생교본위소주집(부)습유』 등에 날인되어 있다. 향로형의 ‘여우’는 역시 초기에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치통감강목』 외에도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 등에 검인되어 있다. ‘오산후학’도 임연재의 초기 장서인으로 보인다. 대개 임연재의 성명인과 함께 검인되어 있다. 『이락연원록신증』, 『이락연원속록』,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등에 검인되어 있다. 이들 3종 서적에는 ‘도촌주인’도 검인되어 있다.

관향의 옛 지명도 넣은 성명인인 ‘곡강배씨삼익’은 장방형의 장서인이다. 『학부통변(學部通辨)』과 『신편통감절요(新編通鑑節要)』 등에 검인되어 있다. 종형의 ‘산수정’은 조선본에도 많이 검인되어 있다. ‘산수정’이 검인된 서적은 21종을 확인했는데, 그 가운데 명판본에 검인된 경우는 『신각선주진한문(新刻選註秦漢文)』,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신편고금사문유취(新編古今事文類聚)』, 『주례전경(周禮全經)』의 4종이고, 『점필재집』,

57) 李荇, 앞의 책, 卷22. 興海郡. 郡名. 張27 ; 山川. 張28.

58) 具贊訓, 앞의 책, 2011, 101쪽.

『이단변정』, 『학부통변』 등 나머지 17종은 조선본이었다.

금역당이 수집한 서적에는 <표 21>에 보이는 바와 같은 ‘남용길장(男龍吉章)’과 ‘금역당’이 검인되어 있다. 방형의 ‘남용길장’에서 ‘男’은 임연재의 아들임을 표현한 것이며, 자신의 이름자만으로 장서인을 삼은 것이다. ‘금역당’은 ‘산수정’과 일치하는 종형이며 문자만 다르다. 금역당은 조선말까지 태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금역당’이 검인되어 있어도 금역당이 직접 수집한 서적인 것은 아니다.

<표 21> 금역당의 장서인(실제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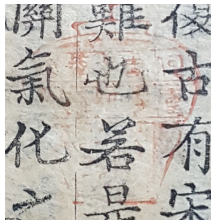



<p>그림 15 男龍吉章.</p>	<p>그림 16 琴易堂.</p>	<p>그림 17 禁爾之樓.</p>
<p><그림 15>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 배현숙 <그림 16> 『聯錦詩集』 © 구자훈 <그림 17>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 배현숙</p>		

이외에 방형의 ‘금이지루(禁爾之樓)’가 검인된 경우도 있다. 이는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대전(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과 『자치통감강목』 등에 검인되어 있다. 금역당은 생도를 교육하기 위해 장육정사를 지은 후 반구정(反求亭)·소오헌(嘯傲軒)·금이루(禁爾樓)·세심재(洗心齋)도 차례로 건립하고자 구상한 것으로 미루어, ‘금이지루’는 배용길의 장서인으로 볼 수 있다.

임연재증가의 장서인은 대개 성명인·자호인·재관인(齋館印)이 검인되

었으나, <표 22>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간간이 한장(閑章)도 검인되어 있다. 이들 한장은 자신의 의자나 기호를 표현한 것인데, 임연재인지 금역당인지 아니면 후대의 사용자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기도 하다. 한장 가운데 ‘취리건곤(醉裡乾坤)’은 천원지방형인데, 『연금시집(聯錦詩集)』, 『의려선생집』, 『한문(韓文)』 등에 검인되어 있다. 도자기 형태의 ‘취옹(醉翁)’은 『신편통감절요』 등에 검인되어 있는데, 삼단으로 나뉘어 문자가 있다. 인문을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하단의 문자는 ‘취옹’으로 보인다. 병형의 ‘취묵(醉墨)’은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대전』 등에 검인되어 있다. 인문 판독이 어려운 <그림 21>의 장서인은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대전』 등에 검인되어 있다. ‘한서엄고(閑書念古)’는 『신편통감절요(新編通鑑節要)』와 『연금시집』 등에 검인되어 있다.

<표 22> 閑章

 <p>그림 18 醉裡乾坤.</p>	 <p>그림 19 醉翁.</p>	 <p>그림 20 醉墨.</p>
 <p>그림 21 ??之亭.</p>	 <p>그림 22 閑書念古.</p>	
<p><그림 18> 『韓文』, <그림 22> 『新編通鑑節要』 © 구자훈 <그림 19,20,21>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 배현숙</p>		

임연재종가의 장서인에 있어서의 특징은 조선 후기에는 정형화되었다고 보이는 위치에 장서인이 검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권두 또는 권말에 검인되었지만,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위치에 검인되어 있다.

임연재종가에서 행한 장서 관리의 두 번째 활동은 서목을 작성한 점이다. 2종의 서목이 작성되었고, 작성된 후 입수되는 대로 추록한 점이다. 『책치부』도 처음 작성된 이후 상당기간은 새로 입수된 서적이 추가로 수록되었다. 주제마다 말미에 다른 서체로 기입된 부분은 추록된 서적으로 볼 수 있다. 추록된 부분은 대개 초서체가 많이 가미된 서체로 저록되어, 임연재나 금역당의 필체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 후에도 추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임연재종가에서 행한 장서 관리의 세 번째 활동은 서목을 토대로 장서 점검을 했다는 점이다. 『책치부』나 『외암비장』을 가지고 적어도 각각 세 번 이상 장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서미(書眉)에 먹색 또는 홍색 또는 청색으로 점 또는 표기가 있고, 서명 아래에는 다른 필체로 ‘무(无)’, ‘무(無)’, ‘전(全)’, ‘부질(不秩)’, ‘일건전(一件全)’ 등이 기록되거나, 쪽지가 군데군데 첨부되어 있는 것을 통해 몇 차례 장서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연재종가에서 행한 장서 관리의 네 번째 활동은 서목에 차람자를 기록해서 반납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외암비장』에서는 대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책치부』에는 서명 아랫부분에 차람해간 인물과 책 수가 부기된 곳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간혹 대출된 기록 위에 먹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는 반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연재는 당대에도 장서가로 알려졌었다.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임진왜란 이전의 사초가 불타 사료를 구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사료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사대부의 가장일기와 문집도 대대적으로 수집했는데, 죽은 감사 배삼익의 집에는 병란 이전의 여러 연도의 조보(朝報)가 있다⁵⁹⁾고 조정에서 언급할 정도로 알려진 장서가였다.

임연재의 장서는 원근에 이름이 나있었다. 따라서 원근에서 차람했는데, 『책치부』에 저록된 차람자를 살펴보면 확인된 인물은 모두 72명이 넘으며, 미상이 35명이다. 전체적으로 차람된 바 있는 서적은 141종이었다. 저록된 인물의 성명이 불완전한 명칭이어서 인물을 일치시키는 데는 곤란한 점이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종수의 서적을 빌려간 순서대로 보면 희지(希之) 7종, 사수(士修)와 박성주(朴城主) 각각 5종, 정구(鄭逌) 4종, 천전김씨(川前金氏) 가문에서 빌려간 책은 모두 11종이고, 나머지는 1-2종이다. 문중의 인물이 차람한 것은 희지, 사수, 외구(外舅), 국암숙(菊岩叔), 지숙(止叔) 등이다. 희지는 임연재의 맏사위 이유성(李惟聖)으로 보인다.

천전김씨 가문을 세분하면 김도사(金都事) 2종, 김내한(金內翰) 2종, 고리급암(校理及岩) 3종, 김내한경백(金內翰京伯) 4종이다. 김내한과 김내한경백은 동일인일 수도 있는데, 동일인이라면 모두 6종을 차람한 것이다. 김경백은 숙종 연간 활동한 김세호(金世鎬, 1652-1722, 자 경백(京伯), 호 귀주(龜洲))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숙종 16(1690)년 문과에 급제하고, 예문관검열과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그렇다면 차람해간 정축년은 숙종 23(1697)년일 것이다.

분명하게 지칭된 차람자 가운데 권호문(權好文), 권동필(權東弼), 박록(朴瀾)은 임연재와 동시대 인물이며, 고용후(高勇厚), 남옥(南珏), 신지제(申之梯)와 정시형(鄭時亨) 등은 조금 뒤의 인물이다. 대개 당시의 관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간혹 성명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성명으로 기록된 경우는 김시강(金是杠), 김학징(金學澄), 수곡류원현(水谷柳元鉉), 우순흙(禹舜欽), 이군직형제(李君直兄弟), 이성극성주(李成極城主), 이양원(李養源), 이지(李遲), 정유번(鄭惟藩) 등이다.

한강 정구는 임연재의 손자 배숙전(裴淑全)에게 서적을 빌려보았다. 한강이 차람한 서적은 『주자어류』 75책, 『칠정산』 10책, 『자생경(資生經)』 6

59) 『光海君日記』, 正草本. 卷21. 光海 1(1609)년 10월5일.

책, 『문헌통고(文獻通考)』 83책, 『두씨통전(杜氏通典)』 75책이다.⁶⁰⁾ 한강이 빌려간 서적은 모두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책이거나 거질의 서적이다. 편지에는 나타나지만 『책치부』에는 저록되지 않은 서적도 있어서 한강이 빌려간 서적은 더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강의 문집에 임연재의 손자 배숙전에게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빌려보기를 청하는 편지⁶¹⁾가 실려 있는 것을 볼 때 『책치부』에는 『황극경세서』도 누락된 것이다.

『주자어류』를 차람한 인물은 천전김교리급암이라는 기록은 있으나, 다른 인물이 차람했다는 기록은 『책치부』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금역당에서 『주자어류』 전질을 빌려간 지 5년이 지나 두 번 째 반납 독촉을 받고 반납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으며, 전에 『주자어류』를 빌려 보았을 적에 인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두주를 달았는데, 망녕되게 논평하였다는 견해를 듣고서 모두 삭제해 주기를 부탁한 두 통의 편지도 있다.⁶²⁾ 이로서 실제 임연재종가의 서적을 차람한 인물은 『책치부』에 저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람 기록을 통해서는 임연재 장서는 백죽당 문중의 장서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의 장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책치부』를 통해 당시 지역의 사대부 가문과의 교류관계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연재에 수장되어 있던 서적은 조선 후기에 원근의 선비들에게 열람시키기도 하고 대출하기도 하여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임연재가 평생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수집한 장서는 임진왜란 전후의 영남 문인의 독서수준과 견문의 정도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60) 裴三益, 『冊置簿』, 寫本. [宣祖 19(1586)]

61) 鄭述, 『寒岡先生續集』, 木板本. [刊年未詳] 卷2. 張17.

62)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木板本. [愚山書院, 憲宗 10(1844)] 卷9. 張23,27.

8. 전래본과 수장처

임연재종가의 두 서목을 통해 임연재와 그 후손들이 가문의 장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서와 장서는 1938년부터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서적이 먼저 분산되어 각급 도서관과 장서가에게 흘러들어갔다. 종택을 송천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상당수 도난되어 민간 장서가의 수장품이 된 상태이다. 도난을 면하고 남은 일부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임연재종가의 문서와 전적을 전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장서가의 장서가 된 전적은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도서관에 수장된 문서와 전적은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장서인을 도려내고 유통된 경우도 있어서 망라하기는 어렵다.

그 중 일부의 서적은 내사기·기증기·장서기·장서인을 통해 그 전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책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사기·기증기·장서기는 문장으로서 서적의 중요성 또는 전래과정을 응변하는 것이다. 장서인은 화가나 서예가가 자기의 작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인하는 낙관과는 형태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검인 목적은 다르다고 하겠다. 서화에 검인된 낙관은 작가와 제작시기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장서인은 서적의 제작자와는 상관없이 수장자를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낙관은 대개 검인하는 위치가 일정하지만, 장서인은 일정한 위치에만 검인되는 것은 아니고, 서적 내부 도처에 검인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곳에 검인한 은인(隱印)도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에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으니, 가세가 기울어도 전적을 먼저 매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세가 기울어 달리 방법이 없어서 매각할 때는 1차 가재, 2차 가옥, 3차 전지, 4차 서적, 최후에 선산을

매각했다고 한다. 서적은 선조의 수택본이므로 중시하였고, 또 서적을 통해 사대부의 길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다.⁶³⁾ 이러한 분위기였으므로 한 가문의 서적이 책재의 수중에 있다면 그 집은 망했다는 의미가 되었다. 따라서 남의 손에 책을 넘기기 전에 장서인을 도려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렇지만 도난당한 서적인 경우 원소유주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장서인을 도려낸 경우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서적의 전래과정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서인이 도려내진 고서를 볼 때 아쉬움을 표현해 ‘서책의 눈을 도려내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장서인을 서책의 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눈이 없어지면 본래의 얼굴과 다르게 보이므로 외관상 인물을 쉽게 변별하기 어렵다. 불상의 경우 점안되기 이전은 단지 조각품에 불과하지만, 점안되어야 비로소 불상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맥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장서인이 있으면 서책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연재종가의 서적들에는 대개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현재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방문한 손님에게 예우를 다해 서적을 보여준 것이 탈이 난 듯하다. 산기(山氣) 이겸로(李謙魯)가 해원(海圓) 황의돈(黃義敦)과 여러 차례 거래를 하였는데, 해원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를 인용하면, “지하에 있는 해원선생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를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이 나에게 책을 내줄 때는 가끔 돌아앉아 주머니칼로 책에서 무엇을 떼어내어 비벼버리곤 하는 것을 보았다. 책을 받아보면 책 중에는 첫 장 첫줄의 하부에 넓이가 약 1cm 길이가 약 4cm 정도의 장방향으로 떼어낸 자국이 있는데 필연 누구의 장서인이 아닌 가 궁금히 여기다가 어느 날은 해원선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비벼버린 쪼가리를 얼른 집어넣었다. 집에 돌아와 펴보니 주인으로 찍은 임연재 장서였다. …해원선생도 역시 배씨가의 장서와 어떤

63) 青木修三, 「朝鮮の典籍に就て」, 『文獻報國』 7권3호, 昭和 16, 103-4쪽.

사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⁶⁴)라고 하였다. 산기는 해원이 임연재 구장의 서책에 행한 행적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대가에서 조상 전래의 서적을 팔 때는 수장하고 있던 가문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장서인을 도려내고 내놓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학자나 수장가는 장서인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서인이 도려내진 서적은 반기지 않는다. 처음부터 장서인이 없었다면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입수하려는 사람은 장서인으로 해서 그 책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장서인이 있는 서적을 입수한 수장자, 조상 전래의 서적이 아닌 서적의 수장자가 장서인을 오려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하겠다. 임연재는 조선시대부터 장서가로 이름나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해원이 임연재종가의 서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1988년 여름 배재진 종손의 친부 배덕환으로부터 직접 들은 안동대학교 배영동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1938년의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황의돈은 고전을 영인하여 간행 하던 조선고전간행회로부터 돈을 받고 희귀본 고전을 수집하러 안동에 왔다고 합니다. 안동 임청각 출신의 이모씨(조선고전간행회인지 서울에서 이런 분야의 일에 종사한 사람으로 기억함)로부터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왔었습니다. 종가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줄 일은 없는데,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왔으므로, 소개한 사람을 믿고 책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안동지역에 장서가 많은 금역당과 유일재 등 몇몇 종가에서 책을 빌리러 왔다고 했다. 그 당시 종손은 출타 중이었고, 차종손(아마 월북한 배성환으로 판단됨)이 빌려주었다. 1달인가 2달인가 보고 돌려준다고 했다. 워낙 많은 분량이라서 사람을 시켜서 지게로 2짐을 나눠서 안동시내의 어떤 여관까지 운반해주었는데, 당시 차종손이 동행을 했다. 여관에 도착하여 책을 내려놓으니, 황의돈이 차종손에게 돈을 50원인가 150원인가 주었다. 차

64) 李謙魯, 『通文館 冊房秘話』, 民祐堂, 1987, 海園藏書의 위탁판매. 51-57쪽.

중손이 내가 책을 빌려주는데 무슨 돈을 주냐고 하니, 황의돈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짐꾼의 수고비조라고 했다. 차중손이 짐꾼의 수고비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뜩하지 않았지만 돈을 받으니 황의돈이 내가 이런 일로 공적인 출장을 왔고, 이 돈이 공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중손이 명함 뒷면에 ‘영수증, 일금 50원(혹은 150원) 정히 영수함. 날짜, 성명’이라고 써주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 『조선일보』에 황의돈이 쓴 칼럼이 수록되었다. 종가에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반환 약속 기일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황의돈에게 연락을 하니, 황의돈이 그 책은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주장하였다. 당연히 종가에서는 빌려주었다고 했다. 여기서부터 법정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 당시 『조선일보』와 사이가 나빴던 『동아일보』에서는 황의돈이 종가의 책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수중에 넣은 일에 대해서 1939년도(?) 사설에 ‘서울의 ○○가(출판사라 했는지, 연구자라 했는지) 가난한 시골선비를 울리다’라고 썼다고 한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발생지 안동으로 이첩되었다. 황의돈이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일보』 일본인 특파원이 안동에 다녀가고(아니면 일본인 특파원 지시에 의한 것인지) 나서 황의돈은 풀려났다.

그 후 황의돈은 『조선일보』 일본인 특파원을 대동해서 재판을 받았고, 황의돈은 내가 ‘감옥에서 죽어서 나갔으면 나갔지 책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책값을 변상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종가에서 빌려간 서적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된 월북 서지학자 김태준(경성제대 교수였다고)이 책값을 150만원(혹은 250만원)으로 평가했다.

민사상의 문제로 처리가 된 까닭인지 황의돈은 배상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에 일부 책은 황의돈의 서재에서 찾아왔고(종가에서 빌려간 책을 맨 아랫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다른 책을 쌓아두었다고 함), 귀중본은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광복되고 빌려준 차중손도 월북한 상태여서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한다.

앞의 대담 내용에 나오는 『조선일보』에 수록된 황의돈의 기사는 1939년

2월 17일자의 「역대흥망(歷代興亡)의 일편시사(一篇詩史) ; 소명정확(昭明正確)한 제왕운기(帝王韻紀)」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짐작되는 기사는 1939년 9월1일자 조간2면에 실린 「고서매매사건불기소석방(古書賣買事件不起訴釋放)」이다. 그 내용에 안동서에서 취조한 결과로서 한경수(韓京洙)와 대동사(大東社)라는 가명으로 기록되어 일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사기당한 서적 가운데 하나가 국보로 지정된 『제왕운기』이다.

이렇게 유출된 서적의 일부는 학산(鶴山) 이인영(李仁榮, 1911~?)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이인영은 평양 굴지의 재산가로 학자이며 장서가였다. 평양 자택의 서재 청분실에 만 책 이상의 서적을 수장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 교수,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연희대학교 교수, 고등고시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6·25전쟁 중 납북되었다. 서지학에 조예가 깊어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와 을유자를 고증한 바 있다. 그의 장서목록인 『청분실서목』에 임연재의 구장서 몇 종이 수록되어 있다.

장서인과 장서기가 온전히 남아 있는 임연재종가의 서적은 전래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장서인을 통해 임연재종가 구장의 전적을 수장하고 있는 곳은 8개 처가 확인되었다. 우선 소규모로 수장하고 있는 기관은 <표 23>과 같이 7개 처이며, 모두 24종이다. 많은 서적을 수장하고 있는 곳은 고려대학교이다. 장서인란에 표기된 ‘臨’은 ‘임연재장’, ‘山’은 ‘산수정’, ‘琴’은 ‘금역당’이 검인된 서적이다.

<표 23> 소규모로 임연재종가 구장본을 수장한 기관

연번	서명	책수	관종	간행년도	수장처	장서인
01	琴易堂先生文集	4	목관	철종 6(1855)	계명대	琴
02	新編蜀漢諸葛忠武侯傳	1	목관	연산 1(1495)	계명대	臨
03	新編蜀漢諸葛忠武侯傳	1	목관	연산 1(1495)	한중연	臨
04	주역언해	5	갑인자복각	선조 연간	玩樹	臨
05	學部通辨	4	목관	중종-명종	국립대	曲, 臨, 山, 琴

연번	서명	책수	관종	간행년도	수장처	장서인
06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17	명자자	증종 11(1516)	국립도	曲, 汝, 山, 琴
07	景賢錄	1	목관	선조 연간	淸芬室	臨
08	救荒撮要	1	을해자복각	명종 연간	淸芬室	臨
09	估畢齋集	8	목관	증종 15(1520)	淸芬室	山, 琴
10	秋江集	4	목관	선조 10(1577)	淸芬室	臨, 琴
11	虛白堂集	8	목관	증종선조 연간	淸芬室	琴
12	農事直說, 衿陽雜錄	1	목관	선조 14(1581)	淸芬室	內賜記, 宣賜之記
13	經國大典	3	갑인자복각	임란전	동국대	臨
14	游頭流錄	1	을해자	명종-선조	동국대	臨
15	關東日錄	1	목관	명종 8(1553)	동국대	臨
16	匪懈堂選半山精華	1	목관	선조 12(1579)	동국대	臨, 琴
17	新刊全相千家絶妙詩魁	1	목관	선조 14(1581)	동국대	臨
18	歷代世年歌	1	목관	임란전	동국대	臨, 山, 琴
19	帝王韻紀	1	목관	공민왕 9(1360)	동국대	
20	大明一統志	2	을해자	증종명종 연간	충남대	臨
21	東文粹	3	목관	임란전	충남대	臨
22	成先生遺稿	1	목관	임란전	충남대	臨, 琴
23	遊松都錄	1	목관	증종 10(1515)	충남대	臨
24	懷堂稿	1	목관	임란전	충남대	琴

『신편촉한제갈충무후전사실(新編蜀漢諸葛忠武侯傳事實)』은 복본을 소장하고 있었던 듯, 4권1책본이 계명대학교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각각 1책이 소장되어 있다. 개인장서가인 완수문고(玩樹文庫)에는 『주역언해』 5책이 소장되어 있다. 완수문고는 의성 산운 출신의 자강(紫岡) 이민환(李民奐)의 후손인 이병기(李炳麒)의 장서이다. 국립도서관에는 『학부통변(學部通辨)』과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대전』이 소장되어 있다. 6·25전쟁 전에 청분실 이인영이 『청분실서목』에 저록한 서적은 『경현록(景賢錄)』, 『구황촬요(救荒撮要)』, 『점필재집』, 『추강집(秋江集)』, 『허백당집(虛白堂集)』, 『농사직설, 금양잡록』의 6종이다. 동국대학교에는 『제왕운기』를 위시해 7종, 충남대학교에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위시해 5종이 소장되어 있다.

임연재종가의 구장서를 가장 많이 수장한 곳은 고려대학교이다. 소량 수장하고 있는 문고는 <표 24>와 같이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석주문고에는 각각 3종이 수장되어 있고, 화산문고에 1종으로 모두 7종이 수장되어 있다. 장서인은 대개 ‘임연재장’ 또는 ‘금역당’이 검인되어 있으나, 『양촌선생입학도설(陽村先生入學圖說)』에는 ‘임연재장’과 ‘곡강배씨삼익’이란 장서인이 검인되어 있다.

<표 2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석주문고·화산문고의 임연재종가 구장본

연번	서명	책수	판종	간행년도	수장처	장서인
01	屏谷先生文集	5	목판	정조 21(1797)	亞研	琴
02	陽村先生入學圖說	1	목판	명종 2(1547)	亞研	臨, 曲
03	柏巖先生文集	4	목판	영조 48(1772)	亞研	琴
04	焦氏易林	2	사본	연기미상	石洲	琴
05	新編醫學正傳	4	갑진자	명종-선조	石洲	臨
06	皇明名臣言行錄	1	목판	명종-선조	石洲	琴
07	大明一統志	1	을해자	중종-명종	華山	臨

고려대학교 도서관 장서 가운데 임연재종가 구장서가 가장 많이 수장되어 있는 문고는 만송문고이다. 구자훈의 논문에 확인된 만송문고 수장본은 94종이고,⁶⁵⁾ 누락된 서적이 1종 있어 모두 95종이다. 누락된 서적은 『구양문충공집(歐陽文忠公集)』이다. 이와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확인된 임연재종가 구장본은 모두 102종이다. 종수로는 102종이 확인되었지만, 거질의 서적이 산실되어 잔본인 상태가 많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판본으로는 활자본, 목판본, 중국본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수장본 가운데 드물게 장서기가 수록된 서적도 5종 보인다.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에는 ‘주곡강배(主曲江裴)[수결(手決)]’라 기록되어 있고, 『항적전(項籍傳)』에는 ‘금역당장(琴易堂藏)’, ‘도목촌장(桃木

65) 具贊訓, 앞의 책, 2011, 815-818쪽.

村藏), ‘병자년 도목촌에서 개장하고, 무신년 선달 그믐날 쓰다 丙子改粧于桃源戊申臘月之晦書’라 기록되어 있다. 『오곡유고(梧谷遺稿)』에는 ‘금역당주인지(琴易堂主人識), 임연재주인지(臨淵齋主人識)’라 기록되어 있고, 『고문(古文)』에는 ‘도촌금역당주인지(桃村琴易堂主人識)’와 ‘춘휴재장(春休齋藏)’, 『구양문충공집(歐陽文忠公集)』에는 ‘금역당장(琴易堂藏)’이란 장서기가 있다. 표현은 달리 했으나, 임연재종가의 장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춘휴재’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임연재종가 구장의 서적으로 동국대학교 7종·칭분실 6종·충남대학교 5종·계명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2종·완수문고·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각 1종·고려대학교 102종이 확인되었다. 현재 행방이 확인된 임연재종가 구장본은 모두 126종이다.

9. 결론

이상으로 고려의 충신 백죽당 배상지의 후손인 임연재종가에 수장되어 있던 장서와 그 서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가에는 장서를 할 공간으로 책방과 목실이 있었다. 이는 『상례비요』의 견책 뒤표지 면지에 그려져 있는 「금역당구가도」란 종택의 평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간략한 도면을 통해 종택에는 개축되기 전부터 장서를 위한 책방은 물론 목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서적 수장을 위한 조건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가에는 2종의 장서목록이 전래되고 있다. 임연재가 사망하기 2년 전인 선조 19(1586)년에 임연재가 주체가 되어 처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치부』와 영조 3(1727)년에 월봉이 주체가 되어 처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암비장』이다. 이 두 서목의 분석을 통해 그 장서의 전모를 파

약할 수 있다.

『책치부』가 발견되기 전까지 알려진 조선 최고의 서목은 선조 21(1588)년 9월 전주사고의 실록을 포쇄한 후 작성한 『실록포쇄형지안』이었다. 또한 사가장서목록으로는 현종 9(1668)-10(1670)년 사이 송준길의 『가장서적부』였다. 따라서 『책치부』는 선조 19(1586)년 처음 작성되었으므로, 확인된 조선 최고의 서목이다.

임진왜란 이전 종가의 사람으로 판종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임연재일 것으로 보이므로 『책치부』를 처음 작성한 주체는 임연재로 추정할 수 있다. 『외암비장』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 초까지 전래본은 도합 2,882책에 이른다. 두 서목에는 서목의 작성주체, 주제 분류, 서명, 책 수, 복본 수, 잔존 책 수, 입수방법, 판종, 차람자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적의 저작자를 우선적으로 분류한 점, 즉 중국인 저자 또는 조선인 저자 여부를 먼저 고려한 점이 특이하다.

『책치부』의 경우 분류에 있어서 사분법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책치부』의 주제는 11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임진왜란 이전인데도 23종에 주자본, 7종에 목판본이라고 판종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목판본과 주자본을 구분했다는 점은 임진왜란 전후에는 없던 일이었고, 판종에 대한 감식안이 생긴 것은 정조 연간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전에 이런 서목을 작성했다는 것은 임연재는 판본 감식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책치부』에는 장서 점검한 기록과 차람자에 관한 정보도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책치부』는 상당기간 장서원부, 장서점검과 대출대장으로 활용된 것이다. 서명 아래에는 점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점검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점검 회수와 점검 시기는 알 수 없다. 종가의 서책은 영남지방의 사대부들도 상당수 차람하였다. 이로서 임연재종가의 장서는 영남지방 장서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차람한 사람은 천전김씨일가, 임연재의 사위 희지 외에 사수, 박성주, 한강 등이다.

『외암비장』은 수해를 당한 후 다시 작성한 서목이다. 월봉의 지기를 통해 『외암비장』은 작성시기와 작성자를 알 수 있다. 월봉은 경종 4(1724)년 6월에 발생한 홍수로 종택이 훼손되고 서책도 큰 피해를 당하자, 종택을 개축했고 훼손된 서적도 정비해 서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개비할 당시 조상 전래의 서적은 수재로 겨우 1,573책만 남아있었다.

서목에는 서적을 입수한 경로를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대개 조상 전래본·내사본·기증본·구입본·교환본·편찬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책치부』와 『외암비장』은 공히 일차 작성 후 새로 입수되는 서적을 추록한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책치부』와 『외암비장』의 저록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외암비장』에는 『책치부』의 11주제와는 달리 25류로 구분되어 있어 분류유목은 더 세분된 것을 볼 수 있다. 『책치부』에는 사본에 대한 주기는 없으나, 『외암비장』에는 19종의 서적에 사본이라 저록되어 있다. 『책치부』에는 편자 또는 저자를 주기하지 않았으나, 『외암비장』에는 간혹 편자나 저자를 저록한 점이다. 또 9종의 서적에는 제침의 필사자 또는 내용의 필사자를 밝힌 점이다.

임연재증가의 두 서목을 통해 임연재와 그 후손들이 가문의 장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 있다. 장서관리 활동으로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장서인을 검인하여 소유주임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검인되어 있는 임연재의 장서인은 7종, 금역당의 장서인은 3종이다. 이외에도 4종의 한장(閑章)을 볼 수 있다. 장서 관리의 두 번째 활동은 서목을 작성한 후 입수되는 대로 추록한 점이고, 세 번째 활동은 『책치부』나 『외암비장』을 가지고 장서점검을 했다는 점이다. 장서 관리의 네 번째 활동은 서목에 대출자명을 기록해서 반납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렇게 세심하게 장서를 관리하였으므로 장서는 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찍부터 조정에게까지 장서가로 알려졌다.

증가의 서적은 문종의 후손과 영남의 사대부는 빌려보기도 하였으므로 차람된 기록이 있는 서적은 141종이었다. 서적을 빌려간 인물은 모두 72

명이 넘으며, 미상이 35명이다. 차람 기록을 통해서 임연재 장서는 백죽당 문중의 장서였을 뿐만 아니라, 영남지방의 장서로서의 기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서 『책치부』를 통해 당시 지역의 사대부 가문과의 교류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책치부』에는 저록되지 않은 서적이 한강의 문집에는 빌려보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목에 누락된 서적도 얼마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서적의 장서인이나 장서기가 원상대로 있고, 공공기관에 수장된 서적은 수장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수장하고 있는 서적은 그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검인되어 있던 장서인을 도려낸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행방이 확인된 임연재종가 구장본은 모두 126종이다. 확인된 전래본 가운데 가장 많은 서적을 수장한 곳은 102종을 수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이다.

『책치부』를 통해 조선전기 사가에서도 장서목록을 작성했으며, 조선후기에 비해 그 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연재의 장서는 단순한 한 가문의 장서로서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문화사적·서지학적·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서로 기억될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 『萬曆十六年戊子九月初一日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 寫本. [宣祖 21 (1588)]
- 具賞訓,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 金東滉, 『冲齋 遺物館 藏書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2.
- 金約瑟, 「秋史金正喜藏書目錄」, 『國會圖書館報』 5-3, 1968.3, 8-11.
- 김자운, 「장서 기록을 통해 본 鄭胤永家 장서 및 藏書印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4, 2017.06, 131-167.
- 金長生, 『喪禮備要』. 木板本. [간년미상] 임연재종가 수장본.
- 金致雨, 「書肆의 設立에 關한 研究」, 『釜山女大論文集』 10, 1981, 321-334.
- 金致雨, 『攷事撮要의 冊板目錄 研究』, 民族文化, 1983,
- 南權熙·최기척, 「慶州崔氏 百弗庵 宗家 崇慕閣 藏書의 書誌的 分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537-557.
- 盧基春, 「長興 梧川精舍 藏書考」, 『호남문화연구』 29, 2001, 5-69.
- 盧基春, 「海南 綠雨堂 所藏 典籍의 性格과 特徵」, 『해남 녹우당의 고문헌』 第1-2冊. 서울: 대학사, 2003.
- 藤塚鄰, 藤塚明直, 『清朝文化東傳の研究 : 嘉慶·道光學壇と李朝의 金阮堂』, 東京: 國書刊行會, 1975.
- 柳得恭, 『冷齋書種』, 寫本. [年紀未詳] 古芸堂筆記.(규장각 古 0320-26)
- 柳得恭, 藤塚隣 編, 『古芸堂筆記』, 寫本. [刊年未詳] 卷5. 賜書總目.
- 柳希春, 『眉巖日記草』, 서울: 國學資料院, 1982.
- 李德懋, 『雅亭遺稿』, 芸閣印書體字. 漢城: 芸閣, 正祖 20(1796).

- 李仁榮, 『淸芬室書目』, 影印本. 寶蓮閣, 刊年未詳.
- 李滉, 『退溪先生文集』, 木版本. [刊年未詳]
- 박용만, 「宛委閣 소장 전적의 특징과 가치」, 『고인쇄문화』 20, 2013. 9, 367-443.
- 박용만, 「宛委閣의 전적수집과 문화적 의미에 대한 고찰」, 『書誌學報』 32, 2008.12, 57-75.
- 박철상, 「임진왜란과 장서인의 보급」, 『문헌과 해석』 18, 2002. 봄, 41-52.
- 朴熙永, 「書肆考」, 『國會圖書館報』 4-11, 1967.11, 5-7.
- 裴龍吉, 『琴易堂先生文集』, 木板本. [哲宗 6(1855)]
- 裴三益, 『冊置簿』, 寫本. [宣祖 19(1586)]
- 裴三益, 『臨淵齋先生文集』, 木板本. [哲宗 6(1855)]
- 裴縑, 『畏巖秘藏』, 影印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9.12.
- 裴縑, 『畏巖秘藏』, 筆寫本. [英祖 3(1727)]
- 裴縑, 『月峯先生文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97.
- 裴賢淑, 「高麗朝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奎章閣』 6, 1982, 46-61.
- 裴賢淑, 「谷城 丁氏家 黙容室 藏書」, 『文獻情報學報』 5, 1993.8, 331-353.
- 裴賢淑, 「萬卷樓藏書考」, 午山 柳東烈先生 定年紀念圖書館論集. 1992.2, 271-292.
- 裴賢淑, 「退溪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10, 1994.12, 135-169.
- 裴賢淑, 『안동 임연재 배삼익종가 ; 충절과 애민, 장서로 일가를 이룬』,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 孫溪鍊, 「同春堂 後孫家 家傳 『家藏書籍簿』의 작성시기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38, 2007.12, 193-225.
- 孫溪鍊, 「朴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연구」, 『藏書閣』 26, 2011.10, 222-255.
- 孫溪鍊, 「藏書印을 통해 본 同春堂 後孫家の 장서 형성 배경」, 『古文書研究』 34, 2009.2, 1-29.
- 宋日基·盧基春, 「海南 綠雨堂 所藏 典籍의 考察」, 『호남문화연구』 31,

2002, 1-3.

宋日基·禹貞訓, 「海州鄭氏 宗宅 家藏 古文獻 研究」, 『書誌學研究』 41, 2008.12, 121-161.

安春根, 『韓國書誌學』, 서울: 通文館, 1967.

玉泳晟, 「史家의 藏書目錄인 留餘觀藏書에 관한 연구」, 『慶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創設20周年紀念論文集』, 1994, 661-191.

玉泳晟, 「史家의 藏書에 관한 一考 ; 東濱文庫 所藏本을 중심으로」, 『계간서지학보』 27, 2003.12, 79-120.

玉泳晟, 「咸陽朴氏 家傳 古文獻의 내용과 資料的 特性」, 『書誌學研究』 19, 2002.6, 255-285.

李謙魯, 『通文館 冊房秘話』, 서울: 民祐堂, 1987.

李肯翊, 『燃藜室記述』, 鉛活字本. 京城: 朝鮮光文會, 1912.

이중서, 「흥해배씨 중가 琴易堂의 건축과 조선후기의 구조 변화」, 『건축역사연구』 25권4호 2016.08, 31-44.

李荇 等撰, 『新增東國輿地勝覽』, 木版本. 光海君 3(1611).

林英蘭·姜順愛,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31, 2005.9, 323-354.

鄭經世, 『愚伏先生文集』, 木板本. [愚山書院, 憲宗 10(1844)]

鄭述, 『寒岡先生續集』, 木板本. [刊年未詳]

鄭羽洛, 「山中圖書館 ‘武屹精舍 藏書閣’의 藏書 性格과 意味」, 『嶺南學』 20, 2100.12, 7-52.

鄭亨愚, 「書肆問題 論考」, 『東方學志』 35, 1983, 161-190.

鄭亨愚, 「書肆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書誌學』 2, 1969, 47-61.

青木修三, 「朝鮮의 典籍に 就て」, 『文獻報國』 7-3, 昭和 16, 103-4.

崔致遠, 「題伽倻山」, 『東文選』, 顯宗實錄字本. [肅宗 39(1713)]

春山(李)仁榮, 「攷事撮要의 冊板目錄について」, 『東洋學報』 30卷2號, 1943, 31-56.

A study on the library collection of Head House of Pae Clan's Im-yeonjae in Andong

Pae, Hyon suk(Keimyung College University)

Key words: Pae Sam-ik, Im-yeonjae, 『The Chaeg Chibu』, Pae Jip, 『The Oe-am Bijang』, catalog, bookseller.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ollection and its catalogs of Head House of Pae Clan's Im-yeonjae 임연재 in Andong. There are two catalogs of books in Head House of Pae Clan 배씨종가. One is 『The Chaeg Chibu 책치부』 compiled in 1586, the other is the 『The Oe-am Bijang 외암비장』 in 1727.

The person who is believed to have written 『The Chaeg Chibu』 is Pae Sam-ik 배삼익, alias for Im-yeonjae. This Catalog was done two years ahead of 『Hyungji-an for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which is regarded as the oldest bibliography of state institutions in the country. 2,882 books were collected, and The Catalog is classified into 11 subjects. The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authors were first considered whether he was a Chinese or a Korean when classifying.

Through this catalog, we can find subject classification, the number of books, the number of copies, the number of remaining books, the method of obtaining them, the type of editions, the borrower, and the size of the collection. His way of obtaining books was in four ways ; king's gifts, by donation, purchasing, and compiling. It is noteworthy that even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1592, the type of

editions which usually appeared in late Choson Dynasty was recorded here. The catalog was used as inventory and loan records.

『The Oe-am Bijang』 was organized by Pae Jip 배집 alias for Wolbong 월봉 in 1727 after a flood in 1724 which damaged the Head House of Pae Clan and its books. The flood left only 1,573 books out of 2,882 books. Books were classified into 25 subject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author's nationality is the same as 『The Chaeg Chibu』. Each book contains the number of its copies, the number of books, the type of editions, and the method of obtaining them.

The first activity of the Pae Clan's collection management was that the owner was identified by the seal of the Head House of Pae Clan's collection. The second activity was that new books were added to the catalog. The third activity was to make an inventory of the books checking and comparing with 『The Chaeg Chibu』 or 『The Oe-am Bijang』. The fourth activity was to leave a loan record on catalog to know what books should be returned.

This shows that private Clans catalogued their library books already in early Choson Dynasty and their level was not lower than that of the late Choson Dynasty ones. They lent books to scholars in wider Youngnam area to serve as local collections, not just private collections. Therefore, this collection goes beyond its function as a library of a single family, and is a collection of social, cultural, bibliographic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2020. 02. 15. 접수 : 2020. 02. 18. 수정 : 2020. 03. 03. 채택)

배현숙(裵賢淑)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조선실록의 서지적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계명문화대학교의 명예교수이다. 서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위원, 대구시의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의 객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정보문화사』, 『조선실록연구서설』, 『안동 임연재 배삼익 종가』 등이 있고, 논문은 「조선조 보존도서관의 시원과 발전」, 「영남 지방 서원장서의 연원과 성격」, 「계미증자본 『사시찬요』의 서지적 가치」, 「『朝鮮實錄』의 2019년 國寶 追加指定에 대하여」 등이 있다.

E-mail: hspae1977@empas.com

